

자막; 이 영화에서 추정되는 실존인물들이 있다하여도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과 이 영화내용과는 아무상관이 없을수도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Prologue 6 월 25 일 오후 2 시쯤 (시간과 장소가 화면에 자막으로 나올때는 타이핑 형식으로 나온다\_공병우 타자기체)**

S1. 파주 과평산 부근.

목에 카메라를 메고 한 남자가 (한규호 서울신문 기자) 막 달린다, 숨이 찰정도로 달리는 와중, 총알이 옆에 빗발치니 한번 쓰러진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달리는 순간 손에서 카메라가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걸 주으려 하는 순간, 총알에 주변에 떨어지고, 남자는 마지 못해 카메라를 놓고 계속 달린다.

S. 1 사단 13 연대 한국군들이 있는 참호속으로 슬라이딩 하며 도착한 남자.

병사 1; 어이 기자양반, 죽을라고 환장했어.  
한규호 (한번 씩 웃는다)

S. 참호속 있는 한국군들 모습을 보여주며 (카메라가 올라가며) 멀리 북한군들이 다가오는 장면이 보여진다

자막; 6 월 25 일, 북한이 남침하고 10 시간 경과 후 파주 과평산 부근.

**SQ1 1950 년 6 월 27 일, 도착, Goodbye Seoul.**

S1. 군용 수송기 안\_세명의 서양 남자기자들 (뉴욕타임즈 버튼 크레인, 시카고 트리뷴 키즈 비이취, 타임 후랭크 기브니) 과 한명의 서양여자 (마거릿 히긴스, 여자는 롱스커트와 과란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후랭크는 자고 있고 나머지는 신문과 잡지를 본다. 비행기는 간헐적으로 흔들린다.

Note; 미국배역들 나오는 모든 실 대화는 다 영어로 하지만. 단 대본집필상 한국어로 쓰였음.

버튼; (마거릿을 쳐다보면서) Hi

마거릿; (Life 잡지를 읽고 있다 버튼에게) Hi

버튼; (마거릿에게) 이름이?

마거릿; 마거릿 히긴스, 당신은

버튼; 버튼 크레인, (마거릿의 옷차림에) 당신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느냐?

키즈; 아마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겠지

마거릿; (키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뉴욕 헤럴드 트리뷴, 마거릿 힌기스예요

키즈; (약간놀란듯) 아, 시카고 데일리의 키즈 비이취, 버튼은 뉴욕타임즈에서,  
그리고 이쪽은 저기 자고 있는 친구는 타임의 후랭크.

키즈; (후랭크를 발로차며) 후랭크, (마거릿을 가리키며) 이분이 누군지 알아

후랭크; (술에 덜 깬듯) 아직 베를린이 멀었나,,

키즈; 도대체 어제 얼마나 마신거죠, 지금 베를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한국으로  
간다고!

마거릿; 비행기를 잘못탄건가요

키즈; 아니요. 후랭크는 2 차대전때, 북아프리카에서 노르망디까지 종군하다, 후에  
총상을 입고 베를린 입성을 병원에서 보냈거든요. (후랭크를 더 강하게 차며)

인사해

후랭크; (마거릿을 보고) 나의 천사님인가

키즈; (후랭크에게) She is a reporter

버튼; (마거릿에게) 우린 셋은 war correspondent 입니다

마거릿; 저도 종군 기자예요

후랭크; 오, 그래요. 이렇게 여성종군기자를 보는건 처음인데요. 뵙는 영광을,,  
(술에 아직 취한듯, 마거릿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를 하려한다).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서로 못봤었죠

키즈; 후랭크, 우리 셋은 매일같이 긴자의 술집에서 있었으니,,

후랭크; (마거릿을 보며) 난 아직도 긴자에서 이쁜 아가씨들과 있는것 같은데,,

버튼; (마거릿의 옷차림을 보고) 웬지 우리가 전쟁터보다 소풍가는 느낌이 드는데,,

밖에서 포격소리가 들린다. 창문밖으로 공항이 공격 당하는 모습이 보인다

후랭크; 직접 전선에는 가본적있나요

마거릿; 노르망디서 부터 베를린까지, 미군사령부와 같이 움직였어요

후랭크; 정말, 난 아른헴까지 밖에 못갔죠. (갑자기 웃옷을 벗자 마거릿이 약간 당황)  
이것때문에 (마거릿에게 옆구리 총상 흔적을 보여준다). 버튼은 베트남에서 서로  
알았고. (카메라를 두개씩 멘 키즈를 가리키며) 이친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키즈; (마거릿에게) 한국말이라도 할줄아나보죠.

마거릿; 아니요.

키즈; 그럼 왜 한국에

마거릿; 홍콩에서 살아서 중국말을 할줄알아요.

버튼; 한국에서는 중국말은 필요 없어요. 일본말은 좀 통하지만, 중국말은 쓸일이  
전혀 없을테니까.

S. 김포공항. 몇몇 미군 수송기가 북한 야크기의 공습으로 불타고 있다. 마거릿  
일행이 각각의 짐을 갖고 비행기에서 내리자 미군 군사고문단과 가족들이 긴급히  
비행기를 올라탄다. 그리고 옆에서 간헐적으로 포탄이 터진다

키즈; (포탄소리에 반응하며) 드디어 전쟁터에 왔네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찍는다)

버튼; (키즈에게) 조심해, 놀이터가 아니니까. 전쟁터라고!

S. 호머가 마거릿 일행에게 다가온다.

호머가 마거릿은 무시하고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버튼과 후랭크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키즈에게 다가간다. 폭격소리와 비행기 소리로 대화는 안들리는데, 키즈가 마거릿을 지목하자, 호머가 다시 마거릿에게 온다

호머; (상당이 싫어 하는 기색으로) 헤럴드 트리뷴에서 온

마거릿; 네 제가 마거릿이에요. 당신이 호머씨인가요

호머; 네, (마거릿의 옷차림을 보고) 본사에서 업무 착오같은데

마거릿; 아니에요 제가 새로이 극동 담당하게 되었어요. (문득 깨달은듯) 빨리오느라

호머; 본사에 내가 다시 연락 할테니(마거릿이 타고온 비행기를 가리키며) 다시 저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상황이 엄청 위험해 질수도 있으니까

마거릿; 괜찮아요. 유럽전선에도 갔었거든요.

호머; 여긴 전쟁터라고요. 여기자가 있을곳이 안된다고.

마거릿; 저는 여기에 여자 기자로써 온게 아니라 종군기자로써 온거예요

호머; 뭔가 모르는데, 나는 당신의 상관이라고, 당신을 해고 할수 도 있으니까.

지프앞에 다다르자,

호머; 다들 타시죠. 저녁에 미군사 고문단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

다들 지프에 올라탄다

S. 6 월 26 일자 호외가 바람에 날린다. 카메라가 한국어로 된 기사 클로즈업; “북한피괴집단 38 선을 넘다...인민군 2 개 사단과 경비대 2 개의 여단병력을 투입시킨,,,”

S. 지프를 타고 가며 기자들이 한국 피난민들과 한국 패잔병들을 촬영한다.

키즈; (피난민들을 보며 사진을 찍으며) 다들 어디로 가는 거죠

호머; 남쪽으로

키즈; 남쪽이라면

호머; 기껏해야, 200 마일 (300Km) 정도, 그리곤 바다

키즈; 꽤 작은 나라네요.

마거릿; 이 분쟁이 얼마나 갈거같아요

호머; 국토도 작고, 군사력은 별거 없는 양쪽이라, 어느 쪽이 이기든, 길어 봐야 3 개월.

버튼;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호머; 아프리카와 비슷하다고 봐야 하고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중공과 소련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키즈; 북한이 침략한 이유가 뭔가요  
호머; 내부적으로는 민족통일이지만, 미군부는 소련과 중공의 아시아 공산화  
과정으로 해석하는것 같아요  
마거릿; 유럽에서 그랬듯이 미국이 막아 내야 해요  
후랭크; 얼마나 빨리 개입하느냐가 관건이겠네  
버튼; (호머에게) 전황은 어떤가요  
호머; 정확한 정보없고, 피난민들에 따르면, 여기서 50Km 까지 북한군이 진출했는  
점, 한국정부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오늘 저녁에 라이트 대령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

S. 서울시내\_보도연맹 학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키즈: 잠깐만요.

마거릿 일행들 한국 경찰들이 몇몇 민간인들을 교회 벽에다 세워놓고 총살시키는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

마거릿; (총살당하는 사람들 보며) 누구죠  
호머; 한때 북한의 협조자들라고 의심받았던 사람들,,  
키즈; 왜 지금  
버튼; (혼잣말로) 베트남과 똑같은데,,  
키즈; 프랑스군이 베트민을 올해 안에 다 소탕한다던데  
후랭크; 그건 프랑스 군의 바램일뿐  
키즈; 그게 무슨 소리  
후랭크; 난 프랑스군이 패할것같아  
마거릿; 이유가  
후랭크; 어떤 전쟁은 군사력보다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하거든. 마거릿은?  
마거릿; 전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 아시아에 공산화가 확산 되는걸 막아야 된다고  
봐요.  
후랭크; 미국이 모든 전쟁을 과연 다 이길수 있을거라고 보나요  
마거릿; 유럽과 태평양에서 이겼잖아요. 맥아더 장군도 있잖아요  
버튼; (호머에게) 한국군의 사기는  
호머; 한국군은 무기도 없고 사기도 잃고 있는듯.

S. 미군사 고문단 사무실

전화기에 통화중인 호머

호머; 편집장, 자네가 왜 마거릿 같은 애송이 여자를 여기에 보냈는지 이해가 안가  
반대편;~~~

호머; 여기 지금 전쟁이 터진거라고, 피크닉이 아니라고  
이때 누군가 들어오니까, 호머가 통화중이라고 나가라고 한다

호머; 자네가 이곳 사정을 모르는거야,  
반대편; ~~이때 전화가 안된다  
호머; hello, hello, hello (전화기를 세계 끊는다) 멍청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수화기를 들자

호머; 여기 전화가 안되니 다른곳을 알아봐양 할거요.

S. 군사 고문단 건물앞. 마거릿과 후랭크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후랭크; (마거릿에게) 미국이 참전하면 이전쟁을 정말 이길수 있다고 보나요  
마거릿; 전 믿어요. 공산주자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하니까요  
후랭크; 전쟁은 뭐라고 생각해요  
마거릿; 슛커들이 만들어 내는 소란  
후랭크; 하하, 난 우리가 낙관적일수록, 이번 전쟁이 전래없이 끔찍해질거라 봐요  
마거릿; 남북전쟁의 영웅 리 장군이 전쟁을 뭐라 했는지 아나요.  
후랭크; 뭐라고 했죠  
마거릿; “전쟁이 그토록 끔찍한 것은 잘된 일이다. 아니면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

S. 미군 군사고문단 건물 남성 화장실

마거릿이 남성용 화장실에서 나오다, 한 한국 남성기자와 마주친다.

마거릿; 여성용 화장실이 없어서.

한국 남성은 의아해 하고 카메라는 남성용 화장실만 있는것을 보여준다.

S. 미군 군사고문단 본부 복도. 한국 기자들과 외국기자들이 엉키어 있다. 인사한다.  
기자들이라, 서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하여 논한다. (추가 요망; 사진을 찍는  
기본적인법; 일반인들이 잘모르지만 중요한 점)

한국기자 1 이 자기 카메라(라이카 3C) 를 만지며, 버튼이 차고 있는 카메라를 보고

한국기자 1; 카메라가 좀 작아 보이네요.

버튼; 새로운 라이카 3F.

한국기자 1; 내것은 3C 인데 그럼 3E 는 어떤 모델이죠

키즈; (농담조로) 3E (독일어로) 독일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없고 바로 3F 가  
최신..

한규호; 라이카 3C 와 다른점이 뭐죠  
버튼; 3F 는 이 플래시 단자가 새로이 추가  
한규호; (셀프타이머 단자를 가리키며) 이걸 뭘죠;  
버튼; 이걸 젓히고 옆의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찌이이~ 하는 매미소리가 나면서  
몇초 뒤 셔터막이 움직인다. 한규호와 같이 사진을 찍는다)  
한규호; 와,,  
마거릿; (한규호에게) 당신의 카메라는요  
한규호; 잊어버렸어요.  
한국기자 1; 이친구가 25 일날 전선까지 가서 북한군 남침을 본친구예요  
마거릿; (한규호에게 다가가) 당신이 처음으로 북한군 남침 확인, 보도했나보죠  
한규호; 네  
마거릿; 정확히 전황은 어땠나요  
한규호; 북한군은 확실히 준비된 모습이었요  
마거릿; 한국군은?

한규호 기자가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 그러나 소리는 안들린다.

S. 미군 군사고문단 본부 복도, 뚝뚝한 한국군 장군 (채병덕) 이 한명의 부관과  
복도를 들어서니 한규호 기자가 마거릿에게 그장군을 가르킨다. 마거릿이  
장군에게 다가가

마거릿; 당신이 채병덕이 맞습니까.  
채병덕; (마거릿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마거릿; 6 월 25 일 한국군의 절반이 휴가중이었고, 전 날에는 군수뇌부들은  
새벽까지 오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대규모 남침에 대한 사전 보고가  
없었습니까?  
채병덕; (부관을 보며 한국말로)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서툰  
영어로) 당신 누구야(이것만 영어로)  
마거릿;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 입니다.

이때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 (한강인도교 폭발 명령자로 지목되는 한명) 가  
다가온다. 그러자 채병덕이 먼저 하우스만 대위에게 경례를 한다.

하우스만; 채병덕, 상황과약은 다된건가요.  
채병덕; (자신있게) 걱정마십시요.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우스만; 라이트 대령님이 오관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서 오라고  
합니다

하우스만이 걸아 가다 뒤돌아 보며,

하우스만; 채병덕, 어제 논의 했던 한강다리들의 폭약 설치는 어떻게 됐소

채병덕; 벌써 준비는 끝났다고 최창식대령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혼자말로)  
그렇게 까지 준비할 필요가,, 사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우스만; 최대령은 어디있오  
채병덕; 정식 보고하러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우스만이 걸어가고, 채병덕의 부관이 마거릿의 존재를 말하자

채병덕; (부관에게) 곧 기자회견이 열리니 거기로 오라고 해. (무시하고 나아간다)

S. 미군 군사고문단 본부 기자실. 라이트 대령, 하우스만 대위등 미군  
군사고문단들과 채병덕을 포함한 한국군 대표단들이 몇몇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하려고 경쟁하며, 마거릿은 남자 기자들에게 약간  
밀린다.

키즈; 어느 쪽이, 언제 먼저 38 선을 넘었나요  
라이트대령 (미군 군사고문 부단장); 6 월 25 일 새벽 4 시를 지나 북한군이 동시  
다발적으로 38 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호머; 아까 동시다발적이라 했는데 무슨뜻인가요  
라이트; (한국 38 선이 나와있는 지도판을 가리키며) 파악한 바로 여기 동부전선  
여기 중부전선, 그리고 이곳 서부전선을 일제히 밀고 내려온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튼; 전면전이 확실한가요.  
라이트 대령;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의 공격의 성격과 수법으로 볼 때 이번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행위로 봅니다  
호머; 선전포고는 있었나요  
라이트; 없었습니다  
호머; 전면적인 공격에 대한 사전정보는 없었나요  
라이트; 약간의 부대가 이동중이었다는 정보는 늘 있어 왔었습니다.

마거릿이 질문하려는 순간

버튼; 한국정부와 정확히 상황파악은 되고있는건가요  
라이트 ; (채병덕쪽을 가리키며) 현재 여기 한국군 장성들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거릿; (손을 들어 지목 받는 대신, 그냥 일어나 질문한다) 25 일 전후로 한국군  
절반이 휴가였고 각 부대장들은 부대에 없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호머가 마거릿의 질문을 듣고 싫은 표정을 짓는다.

라이트; 그건 한국군이 사정있었다고 봅니다  
마거릿; 대령을 포함한 미군사 고문단은 25 일 전후 어디 있었나요.

라이트; 아무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마거릿; 이번 남침에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이 참전하고 있나요

라이트 대령; 중국 개입은 아직 확인된게 없으나, 소련제 탱크가 목격된걸로 보아, 북한군이 소련의 원조를 받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때 포격소리가 또렷이 기자실에 울리고 기자들이 놀란다.

S. 의정부 백석교 부근 (화면에 지명이 나온다)

포격이 떨어지는 와중, 한국군 2사단 25연대 11중대장 문일수 중위 문일수; (특공대원들에게) 이 새끼들이 우리가 무너지면 바로 서울이다. 가자. 특공대들을 끌고 북한군 탱크들을 향해 나아간다. 포탄이 떨어진다

S. 기자실, 창문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자실로

버튼; 이 포성소리는 아주 가까이 들리는데, 정말 잘 막아내고 있는건가요  
채병덕; (갑자기 마이크 쪽으로 와서 웃으면서) 이걸 아군 측에서 대응 하는  
것입니다, 부관, 통역해. (부관이 통역한다)

마거릿; (라이트 대령에게) 미국은 한국전에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것입니까.

라이트 대령;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거릿; 빨리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때도 독일이 유럽을 집어 삼키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한반도에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이트 대령; 미국정부와 일본에 있는 사령부에서도 곧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입니다

마거릿; 정말 한국군 단독으로 이번 침략을 막아낼수있나요

라이트 대령; 이걸 한국군 대표가 답변을,,

통역이 마거릿의 질문을 한국말로 통역한다

채병덕; (38선 작전지도를 가리키며) 우리는 현재, 반격을 성공적으로 가해서 해주까지 진격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쯤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먹을 수있고, 앞으로 7일이내면 북진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해야할일들이 많으니, 우선 오늘 밤은 편히들 주무십시오. 내일 다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부관; (부관이 급히 다가와서 라이트 대령과 채병덕에게 속삭이듯이) 일본 GHQ (General Headquarter) 맥아더 사령부에서 연락이,,



채병덕관 라이트 대령이 급히 달려나간다. 그리고 하우스만 대위가 연단에 선다

마거릿; 이름이

하우스만;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 조선경비대 사령관입니다

마거릿; 한국군 단독으로 현재 북한군의 침입을 막아 낼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우스만; 아까 채병덕이 말한것처럼 현재 한국군이 잘 막아 내고 있는줄 압니다.

마거릿; 남침한 북한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하우스만; 저희도 아직 정보 수집중입니다.

마거릿; (들려오는 포격소리에) 오늘 정말 발뺌고 편히 자도 되나요

주변 사람들이 웃는다.

하우스만; 꼭 자두세요. 내일이 되어야 좀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을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 가려 하는데, 호머가 마거릿에게

호머; 마거릿, 왜 군인들을 적으로 만들려 하지

마거릿; 전 해야될 질문을 한것 뿐이에요

호머; 우리는 군인들과 친해져야해

마거릿; 군인들이 아니라 앵무새들하고 친하고 싶은거겠죠

호머; 당신은 여기있으면 안돼. 다른 기자들에게 피해만 줄테니까

마거릿; 무슨소리죠

호머;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의 본질을 이해 못해

마거릿; 전쟁의 본질이요, 아니, 멍청한 한 남자의 우월감인거 같은데요

호머; 본사에 곧 연락 올거야, 빨리 복귀하라고.

마거릿; 난 여기 있을거고 이곳에서 제 할일을 할거예요.

호머; 당신은 취재에 방해만 될뿐이야. 애송이같으니라고

마거릿; 그만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과 같은 나도 종군기자 이니까요.

호머; 다시 말하지만 내일 첫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야 할거야.

호머가 뭐라 말하려 하자 무시하는 듯 마거릿이 획 돌아 문을 열고 걸어간다. 세계 문을 닫는다.

S. 본부 복도, 마거릿이 자기위해 빈사무실로 들어가려 할때, 채장관이 어떤 초급장교 (신재민\_ 한국군 정보장교) 를 데리고 와서,

채병덕; (마거릿에게 겸손한 말투로) 당신이 맥아더 장군님하고 아주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마거릿; 친한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거예요

채병덕; 여기 신소위 (신재민)를 통역관으로 쓰세요.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마거릿; 저는 괜찮아요. 다른 기자들도 통역관이 없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되요

채병덕; 다른 기자분들은 다 남자고 치안상 위험할수 있으니까

마거릿; 전 여자이겠지만, 괜찮다고 했잖아요

채병덕; 미군측, 아니 맥아더 장군이 당신의 안전이 우려해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마거릿이 다시 말하려 하는데

채병덕; (신재민에게) 잘 모실수 있도록, 알겠나

신재민; (복창에 가깝게) 네 알겠습니다.

채장관; (돌아서 나가려다 뒤돌아 보며) 그리고 보고하는거 잊지말고 (채장관이 급히 달려나가고)

마거릿; (신재민에게) 여긴 미군 시설이니, 당신이 필요없을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뒤돌아 서서) 혹 “미친년”이 무슨뜻인가요?

S. 새벽 2 시, 포격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사무실 군용침대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 마거릿.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린다

신재민; 어서 일어나세요. 후퇴명령입니다.

마거릿; 무슨일이

신재민; 북한군이 거의 서울안으로 벌써 진입했다고 해요. 빨리 나가야 해요

S. 세대의 차량, 첫번째 차량에 하우스만과 채병덕, 최대령등 한국군 간부들, 두번째 지프에 라이프대령, 호머, 후랭크, 세번째 지프에 마거릿, 신재민, 키즈, 버튼. 차들을 타고 긴급히 철수 하는데, 차량들이 피난민들과 후퇴하는 한국군들에 2 번 3 번 차량이 갇힌다. 그리고 순간 커다란 폭발과 불빛 (한강 인도교 폭파) 과 동시에 앞서 가던 지프가 트럭과 충돌,, 호머, 후랭크, 두명의 기자는 약간의 부상, 다 지프에 내렸다. 옆에 터지는 포격들, 그리고 한강쪽으로 달린다. 마거릿의 한쪽 구두 굽이 부러지자, 마거릿이 다른 한쪽도 바닥에 쳐 굽을 없애고 달리는데, 군중속에서 일행을 잃는다. 그때, 신재민이 손을 내밀어 같이 뛰다.

S. 한강 백사장.

마거릿 일행, 미 군사 고문단, 한국군, 한규호를 비롯한 한국 피난민들이 영킨 와중에 한강 백사장으로 달려간다.

S. 헌병들이 공포탄을 쏘며

헌병; 지금 남아있는 배들로는 군인들만 탈 수있으니, 민간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요.

헌병이 공포탄을 계속 쏘며, 민간인들은 뒤로 밀고 군인들 허겁지겁 나룻배에 몸을 던진다.

S. 마지막 나룻배에 마거릿 일행이 타는데 호머가 물에 빠진다, 어둠속에 손이 나와 호머가 잡고 물밖으로 나오니 마거릿이 호머를 배에 태운다.

S. 한규호를 비롯해 나머지 한국 피난민들은 한강가에 남겨져 있다

S. 도강중인 마거릿일행이 파괴되어 불타고 있는 한강 인도교를 보면서 사진을 찍는다.

S. 수원 비행장 건물안 (6 월 29 일)

신재민: (여기저기 사무실을 뛰며 사람들에게). 통화되는 전화기가 있나요

그러다 한 여자가 통화하는 전화기 발견

여자 교환원: (전화기에) 네 회장님, 아직 뜨는 비행기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니요 지금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다음 비행기에 타실수 없어요. ,, 그래도 안돼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외교관들만 현재 탈수 있어요.

신재민; 무슨 전화기죠

여자 교환원; 비행기 예약하는 전화기인데, 높은 신분들이 탈 수 있는 비행기 없냐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신재민: 이거 하나만 전화가 되는건가요.

여자 교환원; 네

신재민; 어차피 이젠 더 예약 받을수 있는 비행기가 없으니 (전화선을 끊으며), 이제부터 통화되는 전화는 여기 없습니다. 알았어요

여자 교환원; (겁먹은듯이) 네,,

신재민이 막 나오려다

신재민; 당신 발사이즈가?

여자교환원; (황당하다는 듯이) 네

S. 비행장, 다른 사무실. 라이트 대령와 마거릿있다. 마거릿은 펜과 작은 노트들고 취재하듯이

마거릿; 북한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예상 못했나보죠

라이트; 전선이 이리 쉽게 붕괴될줄 몰랐오. 북한군이 소련제 T34 를 앞세우니,, 일단 서울이남에서 한국군이 막고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거 같아

마거릿;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이트; 오늘 맥아더 장군이 여기 수원 비행장으로 전선시찰을 위해 올것이요.

마거릿; 만약 서울마저 함락되면 어떻게 되죠  
 라이트; 다음은 대전으로 가야할듯.  
 마거릿; 미군은 참전을 하는건가요  
 라이트; 맥아더 사령관이 결정여하에  
 마거릿; 제가 아는 맥아더 사령관은 물러서지는 않을거예요.  
 라이트;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3 차 세계대전을 촉발할수도..  
 마거릿; 그래도 한반도에서 막아야지, 다음은 일본일텐데  
 라이트 대령; (마거릿에게) Young lady, go back to Tokyo! There may be trouble  
 마거릿; I wouldn't be here if there were no trouble.  
 라이트대령; (마거릿의 롱치마와 블라우스 복장을 보며) 그런 복장이면 당신이  
 여기에 파티에 참석하러 온줄 알지 종군기자로 왔다고 생각하지않을것ियो  
 마거릿; 남는 군복있나요

S. 마거릿이 담배를 물고 혼자 군복을 갈아입고 있는 데, 신재민이 들어온다.  
 신재민이 약간놀라지만 마거릿은 태연히 옷을 계속 갈아입는다.

마거릿; (옷을 다 갈아입고 신재민에게) 어때요.  
 신재민; 잘 어울리는데요. (책상위의 군화를 보고) 하지만 신발은 운동화를 신는게  
 편할거예요 (여자 운동화를 건네준다)  
 마거릿;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쓰레기통에 넣고) 좋은 생각이네요, 통화되는  
 전화기를 찾았나요. 빨리 기사를 보내야 하는데,,  
 신재민; 현재 모든 외부와의 전화는 끊겨 통신은 안됩니다.  
 마거릿; 어떻게 하죠  
 신재민; 아직 일본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탈출한 선교사,  
 외교관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거릿; 그래요. 여기 상황을 뉴욕 으로 보내려면 우선 일본으로 가야 할거같아요.  
 가보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간다)

S. 한대의 비행기에 외교관 가족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있는 것을 본 마거릿.

마거릿; (혼잣말) 아무래도 저기엔 내자리가 없을듯.

옆의 비행기가 한대 더있는 것을 본 마거릿.

마거릿; 저건 뭐죠  
 신재민; 아까 맥아더 사령관이 타고온.  
 마거릿; 그래요. (맥아더 사령관의 비행기로 걸어간다)

## SQ2 오산전투

자막; 1950년 7월 4일 대전

S. 미군 막사를 막 들어가려 하는 마거릿\_머리를 묶어, 군모를 썼다. 얼굴은 고글 자국과 먼지로 뒤범벅 , 키즈, 호머, 후랭크, 버튼이 뒤쫓아 와서

후랭크; 오 마거릿, 당신의 정보력에 놀랐어요.

버튼; “맥아더장군, 미군의 지상군 파견 요청” 마거릿 히긴스, 한국에서,

키즈; 어떻게 맥아더 장군과 단독 인터뷰를 한거죠

마거릿; 뉴욕으로 기사를 송달하기 위해 도쿄로 같이 가게 됐어요

키즈; (아주 놀란듯이) 그럼, 당신이 맥아더 장군의 비행기를 같이 탔단 말이에요.

와우. 놀랍군요

호머; 비행기만 탄거 맞아, 왜 그런 특별 대우를 맥아더 장군이 한거지..

S. 미군 막사 안, 마거릿, 호머, 후랭크, 키즈, 버튼, 신재민과 미군들.. 그리고 타자기 앞에 앉아있는 마거릿, 타자를 치고 있다.

하우스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엔 결의 하에 극동 사령부에서 제 24 사단을 최우선적으로 한국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머; 본대는 언제 오죠

하우스만; 본대가 도착하기전, 북한의 선봉을 지연, 패퇴 시키기 위해 우선 500 명의 선발대가 벌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호머가 더 질문하려하자

마거릿; 500 명이 충분한가요.

하우스만; 북한이 우리 미 지상군이 참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적의 예봉은 충분히 꺾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마거릿; 너무 적을 과소평가하는게 아닌가요

하우스만; 마거릿, 당신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것 같은데.

마거릿; 일주일전에도 두발 뺀고 잘수 있다 하지 않았나요

버튼; 작전은 언제 하는건가요

하우스만; 여러분들에게 미군의 승전보를 제일 먼저 쓸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말해 드릴수 없지만, 기자분들을 위해 두대의 지프를 마렸했습니다.  
우선 한대가 지금 출발할 수있으니 빨리 출발하세요.

그러자 서로 눈치를 보다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막 쫓는다.

마거릿; 신재민! 내 타자기 (하면 달려나간다, 한쪽 신발이 벗겨지지만 그래도 지프를 향해 달려간다, 신재민은 타자기를 들고 막 따라 왔다)

지프에 먼저 도착한 남자 기자들 (후랭크, 호머, 버튼) 때문에 마거릿에게 탈 자리가 없다. 키즈도 장비를 늦게 갖추어, 맨마지막왔다

호머 ; 마거릿, 다음 차를 타고 와야할것 같은데

후랭크; 아니면 내 사타구니 위에 올라타던가.

마거릿; fuck you

버튼; 아마 도착했을 때는 전투가 끝났을거야.

마거릿; 제길. (투덜거리며 벗겨진 운동화를 주으러 간다)

호머, 후랭크, 버튼의 지프가 먼저 출발한다. 막사에 나오는 하우스만이 신발을  
준고 있는 마거릿에게 달려가서.

하우스만; (마거릿에게, 비아냥거리듯) 전쟁에서 속도가 생명이다.

마거릿; 그날 밤, 당신의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뻔한 걸 알아  
줬으면 해. (주은 신발을 하우스만 얼굴 가까이에서 던다)

S 마거릿, 신재민, 키즈가 쥘차를 타고 피난민들과 패전한 군인들은 뒤로하며  
가고있다.

신재민; (마거릿에게) 당신이 일본으로 가서 안돌아 오는 줄 알았어요

마거릿; 단지, 기사를 보내기 위해서 간거데

신재민; 이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 기사가 나갔다고..

마거릿; 피난민과 군인들도 탈출하기 전에 다리를 끊었으니. 혹 신재민 가족도

신재민; 네 어머니와 여동생도 탈출을 못한거 같아요.

마거릿; 안됐네요. 그럼 아직 서울에

신재민; 모르겠어요

마거릿; 여동생이 몇살인데요

신재민; 15 살 (사진을 보여준다)

마거릿; 이쁘고. 많이 닮았네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린다.

S. 후랭크, 호머, 버튼이 탄 지프가 달리는데, 옆에 폭탄이 터져 지프가 굴러 버린다.  
그와중에 후랭크와 버튼이 사망.

S. 달리는 마거릿 일행의 지프

신재민; 왜 종군기자가 된거죠.

마거릿; 책상에 앉아있는 타입이 아닌가봐요

신재민; 이해가 안가요. 굳이 전쟁터로 가려는게, 그것도 여자가

마거릿; (신재민을 췌려보며) 멍청한 남자들이 전쟁터에에서 얼마나 멍청한  
짓들을 하는지 알려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들을 보낸 엄마들이 안심하지 않겠어요

신재민; 그게 종군기자의 역할인가요

마거릿; 군인들은 몇명 죽였는지만 기록할뿐, 다른걸 기록하려 하지 않아요.

전쟁의 사실을 기억하는건 사람과 기록뿐인데, 시간이 지나, 그때의 사람들 마저  
사라지면, 훗날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알수없잖아요.

그래서 저같은 종군기자가 있고 그들이 남긴 기록이 필요한거죠. 잊지 않기 위해.

덤으로, 세상을 더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수도 있고.

신재민; 금기 사항같은 건 없나요

키즈; (끼어들며) 종군기자의 불문율은 절대 총을 들지 않는다.

마거릿; (카메라를 들며) 우리에게 이게 무기니까요

신재민; 설령 적들과 마주쳐도

키즈; 어느 종군기자가 카메라 대신 총을 든게 신문에 나면, 그 후로 종군기자는 적으로 간주되고. 어떤 종군기자도 살아남지 못할거예요

마거릿; 어차피, 종군기자 한명이 총을 든다고 승패가 달라지겠어요.

마거릿이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피난민과 패잔병들을 찍는다

신재민; 미국이 전면적으로 참전을 결정하는건가요

마거릿; 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이 공산주의에 맞서 참전을 해야한다고 기사를 썼어요. 현명한 미국인들이라면 그렇게 할거예요

S. 마거릿 지프가 가다 폭격 맞은 지프 옆에 멈춘다. 그리고 버튼와 후랭크는 죽었고 호머는 부상을 입었다.

마거릿; (놀라움으로) oh my god!

신재민와 키즈가 호머와 시체들을 끌어낸다.

마거릿; (호머에게) 어떻게 된거죠.

호머; (아픔을 참으며) 달리고 있는데, 포탄이 우리 지프의 옆을 때렸고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어

마거릿이 애도의 뜻으로 후랭크의 목에 걸린 카메라를 전복된 지프위에 올려 놓는다.

두명의 시체를 마거릿일행의 지프 본넷에 묶고 계속 달리는 마거릿 일행.

신재민;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마거릿; 그런 사실들을 알리려면 내가 충분히 그곳에 가까이 가야 하는거죠. 그게 설령 죽음이라도.

S. 마거릿 일행의 지프가 영어로 “OSAN” 이라는 간판을 지나고 있다

마거릿; 오산이 무슨뜻이죠

신재민; 공교롭게도 두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지역명이지만 또 잘못된 예측이라는 의미도.

마거릿; 흥미롭네요

지프가 도착지에 도착한 후, 마거릿과 신재민은 내린다.

마거릿; 키즈!, 호머씨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부탁  
키즈; 알겠어요. 하지만 돌아 올때까지 전투를 끝내면 안돼요. (키즈는 지프를 타고 다시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 간다)

S. 1 진지\_왼쪽 전방 과 2 진지 오른쪽 후방, 양쪽 길가에 담배를 피우며 허술하게 매복 하고있는 미군들.

S. 1 진지, 왼쪽 전방에 매복하고 있는 10 명의 미군들. 계속해서 남하하는 국군 패잔병들과 피난민 행렬,

새드릭 이병; (한국군 패잔병들에게 거만하게) 어이 한국 전우들, 걱정들 하지마! 우리가 왔으니

미군 2; (총도 없는 패잔병들을 보고 다른 미군에게)., Can you believe that? No gun. Where is your gun? (다른 미군들이 다 웃는다)

미군 3; 필요하면 내걸 빌려줄게, 어쩔 우리도 총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북한군이 우릴보면 그냥 도망칠 지도 모르니까.

마거릿과 신재민이 1 진지에 다가온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내면서 새드릭 앞에 앉는다.

마거릿; 인터뷰좀 해도 되겠죠

새드릭; 그럼요. 그럼 제가 신문에는 나오는건가요

마거릿;물론이죠

새드릭; (옆에 있는 병사를 치며) 임마, 내가 신문에 나온데.

마거릿; 이름이

새드릭; *Kenneth R. Shadrick*,

마거릿; Shadrick, 어디 출신이죠.

새드릭; (상당히 자신감에 들떠있다) Harlan county, Kentucky.

마거릿; 몇살인가요

새드릭; 20 살

마거릿; 훨씬 어려보이는데요

옆에 있는 미군 2

미군 2; 진짜로는 17 세일걸요

새드릭; 무슨소리 하는거야,, 아니 그건 입대할때 나이고 지금은 18 세.

마거릿; 참전은 처음이겠네요.

새드릭; 네, 저는 처음이지만 (돌아 다니는 상사를 보며 부른다) 상사님, 저분은 이오지마에도 참전하셨다고 했어요.

마거릿; 소감은 어때요



새드릭; 당연히 우리 부대가 공산군을 여기서 막아낼겁니다.

마거릿; 북한군을 본적이 있나요

새드릭; 아니요

미군 2; (말을 끼어들며) 북한군이 우릴보지만 해도 도망갈텐데, 볼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거릿; 자신감이 충분해서 좋네요.

상사; 그만 뒤쪽 진지로 가지죠

상사의 안내로 마거릿이 신재민와 뒤쪽 진지쪽으로 걸어간다.

미군 2; (마거릿의 엉덩이를 보며, 새드릭에게) 누님 엉덩이 죽이는데,,

S. 조용해진 길, 바람에 먼지들이 심하게 날린다

S. 1 진지, 미군들이 담배도 피고 상당히 여유롭게 있다.

미군 3; 저기 또 한국군 패잔병들이 오네 .

새드릭; (손을 흔들며). 걱정들 하지마, 우리 미군이 왔으니

앞에서 먼지에 뒤덮힌 채로 걸어오던 3 명의 군인들도 손을 흔들며 미군에게 웃으면서 다가 오다 갑자기 총을 발사한다. 새드릭이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첫번째로 쓰러진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북한군들에 의해 다른 미군들이 순식간에 전멸.

S. 2 진지 오른편 후방, 마거릿 일행이 매복해 있는곳. 앞선 장면과 비슷하게 전방에서 몇몇 군인들이 다가온다. 마거릿이 카메라로 사진도 찍는다.

S. 가까이 다가오는 군인들중 하나가 옷에 묻은 먼지가 날아가자, 드러나는 인민군복.

신재민; (갑자기 총을 들어 사격) 적이다

다른 미군병사들도 뒤늦게 신재민와 함세해 사격, 그리고 교전

S. 진지 3. 다른 4 명의 미군들; 북한군 T34 탱크가 도열을 해 빠르게 지나가고 미군들이 바주카포를 쏘지만 탱크는 크게 파손없이 계속 질주.

미군 6; 뭐야, 이걸로 안돼겠는데.

미군 7; 근데 대응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 신경도 안쓴다는 건가.

미군 8; 뭘로 막아야지

탱크가 지나가고 먼지 속으로 군용트럭들과 북한군 병사들이 빠르게 진입한다.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지지만 미군들은 6,7 사망. 8 은 자기 총도 놔두고 후퇴.

S. 숲속을 수색중인 미군 소대. 앞쪽에 두명의 척후병이 가고 나머지 소대원들이 뒤따라 간다. 갑자기 북한군 1 명이 나타나 두명의 척후병들을 사살하고 빠르게 숲속으로 도망친다

미군중대장; (흥분한 상태로) 저 새끼를 쫓아가 죽여

미군 상사; (머뭇거리며) 함정일거예요

중대장; 우리가 노출 됐으니 빨리 쫓아서 죽여야 돼

상사; 차라리 포병 지원을 요청하는게,,

중대장; 마이클 병장,

마이클; 네

중대장; 자네 분대를 데리고 가서 아까 그 놈을 죽여, 그놈이 본대에 알리기전에 죽여야해

마이클; 하지만

중대장; 명령이다

마이클; (9 명 분대원들에게) 톰, 행크 다들 따라와

분대 병력이 북한군이 사라진곳으로 달려간다. 울창한 숲, 마이클이 순간적으로 분대원들에게 진격을 멈추게 한다. 그 순간 매복해있던 북한군이 기관총을 발사 순식간에 5 명 쓰러짐

톰; (앞으로 나아가며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보고, 앞으로 사격하며) 의무병, 의무병

달려오는 의무병도 사망. 그래도 부상병 1 명과 나머지 4 명이 치열하게 교전을 버린다.

상사가 다급히 중대장에게 달려온다

상사; 마이클 분대가 적군에 포위 됐습니다.

중대장; (무전병에게) 박격포 지원 요청해

무전병; 북한군이 박격포 진지를 돌파했습니다. 아군 포대 진지 까지 접근중입니다

북한군 3 명이 갑자기 나타나 미군 중대장, 무전병 사살, 그리고 근접 교전, 여기 저기 미군들이 총에 맞고 쓰러진다. 상사가 몇명의 북한군을 죽인다.

그때 앞에서 달려오는 톰.

상사; 분대원들은

톰; 다 죽었어요.

수색 소대도 거의 다 전멸해가고, 톱도 다리에 한방 맞는다. 상사가 톱을 들쳐 업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북한군을 업힌 상태로 쫓아서 쓰러뜨린다.. 그리고 진지 2 에 도착한다.

S. 진지 2. 신재민와 다른 미군들이 추격해 들어 오는 북한병사 몇명을 사살하고 톱을 진지로 끌고 들어 오는 순간, 상사는 북한군 추격조에 사살. 하지만 더 많은 북한군이 계속 신속히 접근.

S. 한명의 북한군이 마거릿의 군모를 조준해서 사격하는데, 다행히 군모가 마거릿의 긴머리 때문에 올라가 있어 모자만 벗겨진다

S. 신재민가 죽은 상사의 헬멧을 벗겨, 마거릿의 군모를 벗기고 헬멧을 씌운다.  
신재민; (마거릿의 머리를 치며) 앞으로 이걸 써요.

S. 북한군이 계속 밀고 들어 오려는 순간, 포탄이 북한군측에 몇발 떨어진다.

S. 진지 2 에 있는 부상병을 포함한 모든인원이 전력 질주하여 후퇴한다.

S. 미군한명이 뒤늦게 따라온다.

미군 9; 나도 데려가줘.

그때, 쇠도하는 북한군에 팔을 한발 맞고 총을 떨어뜨린다.

미군 9; 나를 버리지마. 제발.

그래도 뒤따라 가려한다 계속 따라오는 북한군, 이번에는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다. 북한군이 가까이 다가온다

미군 9; (울면서) 엄마 (수류탄을 폭발시킨다)

S. 마거릿 일행들이 한참 달리다. 다들 숨에 차서 잠깐 걷는다.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한명이 튀어나온다. 모두가 총을 겨눴는데,

미군 8; 쏘지마, 난 미군이야.

미군 4; (총이 없는것을 보고) 당신 총은

미군 8; 달리다 빠뜨렸어. 이길로 가면 안돼. 북한군이 벌써 앞질러 갔거든.

저쪽길로 가야 해

S. 마거릿이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미군시신의 사진을 찍는다

S. 오솔길로 가는 마거릿 일행들.

미군 4; 우리를 보기만 해도 도망갈거라더니.

미군 5; 아니 이건 예상과 달라. 저쪽은 상당한 훈련도 잘돼있는 정예부대였어

미군 8; 내가 쫓던 바주카포는 적 탱크를 맞혀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S. 자막; 대전의 미 8 군 부속사령부. 7 월 18 일

S. 워커 중장 막사. 중장과 하우스만대위, 페이스 중령, 라이트 대령 그리고 호머 기자

미군 한명이 길에 죽어있는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있는 워커중장, 주변에 서있는 부관들은 어디로 볼똥이 될지 약간 얼어있다.

S. 마거릿과 신재민이 막사안으로 들어온다

워커중장; 마거릿, 당신이 이 전선에서 떠나 줘야 겠어!

마거릿; 무슨 말인지?

워커중장; 마거릿, 당신을 위해 특별히 여성화장실같은 것도 마련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말이요

마거릿; 걱정마세요. 저를 위한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도 않고, 어차피한국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이 따로없고 사방이 화장실이던걸요.

워커중장; 우린 총을 든 병사가 필요한거지, 여기저기 기사거리를 위해 카메라를 든 사람이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을 지켜줄 여유도 없단 말이요

마거릿; 저를 지켜줄 걱정도 안해도 되요.

워커 중장; (점점 화를 내며, 미군이 길거리에 비참하게 죽은 사진을 싫은 신문을 가리키며 마거릿에게) Are you mad? 당신이 무엇을찍고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지는 아는가?

마거릿; 전투에서 벌어진 사실들이죠

워커; 당신은 전쟁을 몰라. 전쟁은 수많은 전투를 수행하고 어떤 전투는 지고 어떤 전투는 이길수 있고. 하나의 전투가 잘못됐다고 그 전쟁이 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마거릿; 그렇다고 준비없는 전투가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워커중장; (쓰러져 있는 비참한 미군 병사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가리키며) 이런 사진과 기사는 이적행위이고 우리군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건 이적행위란 말입니다.

마거릿; 전 문제점을 지적했을뿐이고 그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워커중장;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는 빠르게 배치되다 보니 생겼던 문제였어요

마거릿; 아니요 당신들의 자만심때문에 생겼겠죠

워커중장;여기를 떠나시오

마거릿; 북한 군인하고 한국군하고도 구분도 못하는 데 어떻게 전투를 하죠.

워커중장; (화를 내며)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마거릿; 못떠나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는 법적으로 취재할 자유가 보장된다고요.

워커중장; 그런 법은 평시에 존중되는 법이고 여긴 전쟁터요.

워커중장; (부관에게) 저 카메라를 빼어 그리고 이 숙녀분을 전선에서 최대한 멀리 후송시키도록

마거릿; 저에게 이럴수 없어요

워커중장; 난 한 미국 여성이, 이 머나먼 곳에서 전투중 포로가 되거나 사망했다는 기사를 허용 할수 없으니, 명령하는 거요

마거릿; 저는 종군기자이고 그런 명령을 내릴수 없다는것을 아실텐데요

워커중장; 또 한가지, 앞으로 모든 보도는 전시 보도 자문국을 통해서만 허락될거요

마거릿; 말도 안돼요. 당신은 언론은 검열하겠다는건가요

워커중장; 적에게 유리한 기사를 막겠다는거요

마거릿; 우리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워커중장; 여긴 전쟁터라는 걸 명심해요, 부관, 빨리 여기서 내보내

워커부관이 카메라를 뺏으려하자 마거릿은 강력히 저항한다. 신재민가 권총집에 손이가는 걸 본 마거릿은 신재민에게 하지마라는 눈치를 주며 저항을 멈춘다.

마거릿; 알았어요

부관이 카메라를 뺏고 마거릿을 끌고 나간다.

워커중장; (마거릿이 찍은 북한군 사진들을 가리키며, 부관들을 향해) 당장 작전 후 보고서(AAR, After Action Report)를 작성하고 북한 군복에 대해 습득 교육을(LL, Learned Lessons) 전 부대원에게 시키도록,,

이것도 전 부대원에게 전달하도록, 여기서 더 후퇴하면 내가 장례식을 치뤄주지 !! 다시 한번 말하지만, Not a step back. We stand or die here.

S. 막사밖으로 끌려 나오는 마거릿, 신재민

마거릿; 아까 정말 권총을 뺏을라고 했나요

신재민; ,,

마거릿; 일단 전화좀 해야 겠어요 이번에 전화기를 찾을 수 있겠죠

신재민; 어디에 하시려고

마거릿; 맥아더 장군에게요.

S. 지프차에 대기 하고 있는 마거릿 과 신재민. 호머가 다가온다

호머; 마거릿, 여기 취재는 나에게 맡기고 어서 워커 중장 명령에 떠나시지

마거릿; 막 가려고 했어요

워커 부관이 달려온다.

부관; 자 카메라요. 그리고 워커 중장이 사과말씀을 전하라고  
마거릿; 어디로 가는거죠  
부관; 대구로

모든 부대원들이 급히 기동한다.

### SQ3. 낙동강 전선 7월 30일

S. 미군막사.

기자들이 대기

호머; (마거릿에게) 집념인가 오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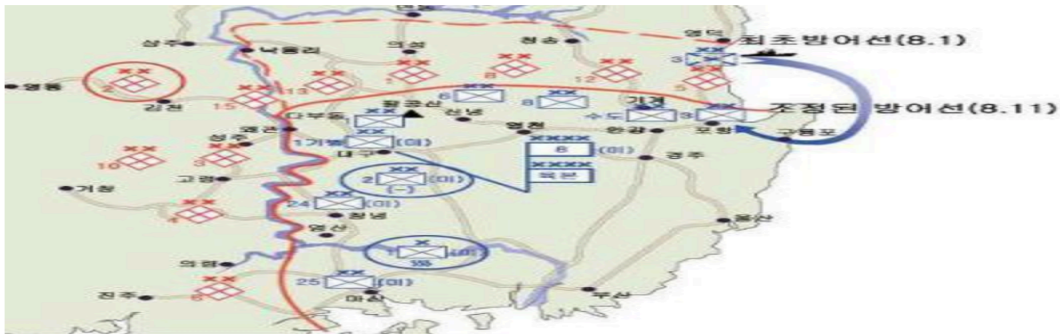
마거릿; 뭐가요

호머; 여기에 남아있는게

마거릿; 직업정신이겠조

호머; 미군 장성들이 당신을 더 이상 전선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 안할텐데, 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미군 장교가 입장한다



하우스만; 여러 기자분들의 요청과 워싱턴에서 온 가이드 라인에 따라,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취재 허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낙동강 전선은 상당히 위험하니, (지도를 가리키며) 현재 이곳 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미군 방어지역과 나머지 여성 기자분들은 이쪽 부산에 있는 군수  
사령부대에서만 취재가 허락 되었습니다.

마거릿; (둘러보며) 여기 여성기자 분들은 없고 여성은 저 혼자라 그리고  
여성스럽게 생긴 (하우스만 대위를 가르키며) 댁 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다른 남자 기자들이 웃는다.

마거릿; 여성 기자는 부산에서만 취재 해야한다고 어떤 기자분들이 요청을 한거죠.

남자기자들이 조용하다

마거릿; (하우스만에게) 지난 6 월 27 일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안전했나요? 지금은 (앞의 작전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안전하다는건지 알수가 없는데요. 여기있는 다른 슷커들보다 최전선을 취재 할수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하우스만; 현재 모든 미군 사단장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성 기자의 취재를 허락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거릿에게 성적인 농담) 당신의 그 긴머리가 전선에 휘날리면 우리 미군의 안전도 위협받을지 모르죠

마거릿; 그럼 한국군은요

하우스만; (농담조로) 당신이 죽고 싶다면, 가도 좋소

## S. 한국 해병대 막사

신재민과 마거릿 해병대 막사에 들어온다. 해병대 김중령과 서로 인사를 한다  
신재민; (김중령에게 경례를 한다) 본부에서 이쪽으로 가면 지원해준다고

마거릿이 쓰고 있던 철모를 벗으니 긴생머리가 드러난다.

김중령;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무슨일이라도 나면

신재민;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김중령; 내가 걱정하는건 적뿐만 아니라, (마거릿의 외모를 보며) 전쟁터에 여자라는게, 혹시 이상한 문제라도 터지면,, 그것도 미국여자와

신재민; (마거릿을 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박종혁가 들어온다.

박종혁; (경례) 충성, 이등상사 박종혁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김중령; 박종혁, 자네 분대가 이 두분을 좀 맡아주어야 하겠네

박종혁; 무슨

김중령; (마거릿을 가리키며) 우리 한국군의 전선을 취재할 미국 기자분이야

박종혁; 이 여자가요

김중령; (강조하며) 그래 이 여자가

박종혁;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중령; 위의 명령이라니까

박종혁; 알겠습니다.

김중령; (신재민을 가리키며) 이쪽은 신재민, 통역 정보 장교..

신재민가 마거릿에게 영어로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신재민에게 무언가 부탁,,

S. 조이병이 마거릿을 이발하려고 보자기를 썬우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민이 그앞에 거울을 들고 있다. 거울에 비친 마거릿은 자신을 본순가 웃음짓는다.

조이병; (신재민에게) 그게 말입니다

신재민; 왜 그러나

조이병; (옆에 머리 뽁뽁각은 해병들의 머리를 보며) 제가 저런 머리에는 선수인데 (마거릿의 긴머리를 본다) 제가 이런 머리는 처음이라,

신재민이 마거릿에게 조이병의 고충을 설명한다. 마거릿이 좋다고 한다

신재민; (조이병에게) 깎아도 좋아

조이병; 혹 정말로(자기의 뽁뽁각은 머리를 쓰다듬는다)

신재민; 아니, 그냥 긴머리가 화이바에서 안나오게 정도.

조이병이 가위질을 조심 조심한다. 그러니까 마거릿이 가위를 달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 그장면을 신재민가 우습다며 들고있던 거울을 조이병에게 건네주고 마거릿의 카메라로 찍는다.

S. 마거릿, 신재민 한국 해병대 1 개 소대와 시골 논길을 따라 걸어 가고 있다

마거릿; 아까 그 큰강이 뭐라 했죠.

신재민; 낙동강이요.

마거릿; (들에서 흰색옷을 입고 일하는 농부를 사진찍으며) 한국인들은 유난히 흰색을 좋아하나요. 흰색옷, 하얀 쌀밥, 그게 뭐죠 지난번에 마셨던 술

신재민; 막걸리

마거릿; 심지어 술도 흰색, 이유가 뭐죠

신재민; 원래 우리가 white people 의 원조였나 보죠

S. 마거릿 뒷편의 해병대원들

김하사 ; 박상사님, 우리분대는 저 양키여자 경호부대인가보죠

박종혁; 위에서 명령이야,

김하사; 왜요.

박종혁; 통영작전에서 우리 보고 귀신잡는 해병대라 했다고 위에서 특별히 협조 하라고

그 뒤편에 따라 오는 오하사과 정일병, 김이병

정일병; (저앞에 가는 마거릿에 대해 북한 사투리로) 오하사님, 아무래도 저거 미친년 아닙니까, 전쟁통에 여자가 되가지고 저리 싸돌아 다니싸니.



오하사; 종군기자란다.  
 김이병; 그게 뭐데요  
 오하사; 새끼야, 니는 그것도 모르냐, 전선에서 찍사  
 정일병; 찍사요. 그럼 혹 일본군에도 있었던 거시기  
 오하사; 아 새끼,, 사진찍는 거  
 김이병; 영정사진라도 공짜로 찍어주나 보죠  
 오하사; (김이병과 정일병을 가리키며) 이 새끼 둘은 정말 밥통이야.. 군인들 쫓아 다니면서 전투를 취재하는 신문사 기자님이란다  
 정일병; 아 우찌 죽냐 사냐 취재하는 기자님. (김이병에게) 니도 좀 알아라 무식쟁이야  
 김이병; 근데 총맞기 딱 좋은데요

뒤로 온 박종혁

박종혁; 왜,, 여자라서  
 김이병;. 뽀짝뽀짝 하는게 빨갱이들이 보면  
 박하사; 이새끼는 나이도 제일 어린놈이 (머리를 때리지만, 헬멧에 맞아)  
 김이병; 아니요 카메라요. (카메라가 태양빛에 반짝 반짝 멀리서도 비친다)  
 정일병; 남들은 살겠다고 하며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판에, 하기사 큰 목걸이나 하나 들쳐메고 저리 앞에 가다가 딱 총맞기 좋죠  
 박종혁; 니 마누라가 저럼 우짤래  
 정일병; 다리 몽땡이를 분질러 놔야죠. 어디 못 싸다니게

S. 마거릿, 신재민, 해병대 한개 분대가 밥짓는 민가를 발견하고 조심이 접근한다.

S. 병사들이 노부부가 있는것을 발견한다. 수색을 하다 초가집 부엌의 슬단지에 하얀 쌀밥을 준비중이라는것을 발견하다. 마거릿은 사진을 찍는다.

김이병; 정일병님, 하얀 쌀밥이에요.  
 정일병; 널 죽더라도 우리 흰쌀밥이나 배터지게 함 먹고 죽자  
 최하사; (함경도 사투리) 할머니, 이거 우리좀 주세요, 대신 여기 건빵하고 미군 씨레이션을 드릴테니가요

마거릿이 노부부들을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방에 걸린 가족사진도 찍는다.  
 신재민도 가족 사진을 본다.

할머니; (밥상을 차려주고) 자 드시요  
 병사들이 다모여 밥을 먹는다.  
 김이병; 다른 반찬의 냄새를 맞고, 아니 여기 생선구이도 있네,,

할머니가 약간 안타까운 내색을 비친다.

최하사; 난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맞네  
오하사; 무슨 제삿날이라도 되나 하얀 쌀밥에 생선에  
박종혁; 신재민님, 같이 드시죠.

신재민이 마거릿에게 밥을 먹자고 하자, 마거릿이 밥먹는 병사들의 사진을 찍으며  
신재민에게

마거릿; 이상하지 않아요

신재민; 뭐가요

마거릿; 신재민가 그랬잖아여. 제사날이나 명절 아니면 흰쌀밥 먹기힘들다고, 근데  
노인두명이 저렇게 많은 밥을 준비한다는게

신재민; (자세히 보니 무언가 이상하다는점을 발견한다, 마루에 피젯국도 보이고,  
조심히 밥먹는 박종혁에게 싸인을 한다)

박종혁가 김하사에게 싸인을 보내고 두명이 조심히 신재민에게 다가간다.  
신재민이 마루위의 피젯국이 보여준다. 이때 할아버지가 병사들이 발견한것을  
알고 김하사에 다가가 대화를 한다

할아버지; 그게 아침에 내가 들에 일어나갔다가 피곤해서 그런지 코피가 좀 나갔던,  
이 할망구는 이런거나 뉘지,,

S. 짚단뒤에 숨어있는 세명의 북한군\_ 다리에 부상당한 소좌, 상급병사, 하급병사.

상급병사; (장교에게 이복말로 속삭이듯이) 소좌동지, 지금 썩바려야 합니다

장교가 머뭇거리는데 사이 상급병사가 사격자세를 취한다. 하급병사가 제지하려  
한다

상급병사; (하급병사에게 총을 겨누며) 이새끼, 니레 일부러 우리를 여기로  
유인했지

소좌; (권총을 빼들면서 상급병사에게 자제를 요청하면서 공격준비도 하려한다

상급병사; (할아버지가 김하사과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저놈의 할배가  
고발할겁니다.

상급 병사가 총으로 막 나아가 사격을 하자, 할아버지와 김하사 이 쓰러진다  
할아버지는 사망, 김하사은 부상, 그리고 식사중인 병들을 다 죽이려 하려는데,  
하급병사가 뒤에서 상급병사를 쏜다, 그때 소좌가 하급병사에게 권총을  
쏘려하는데, 신재민가 소좌를 싸버린다, 하지만 소좌가 쏜 총알에 하급병사 팔에  
부상. 박종혁가 제빠르게 부상당한 하급병사 제압한다. 이때 밥먹다 놀란, 다른  
해병들이 달려오고, 하급병사를 구타하기 시작한다.

할머니 ; (뛰어나오면서 울며, 구타하는 해병들을 붙잡으면),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정일병; (구타하며) 이 빨갱이 새끼 (총구를 머리에 대고 쏘려한다)

조이병; (부상당한 김하사에게 가서) 김하사님 괜찮으세요

김하사; (어깨의 상처를 보며) 응 약간 스친거 같애

할머니; (울며, 하급병사를 겨누고 있는 정일병의 총구 앞에 주저 앉으며)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친 손주예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 인민군에 끌려가 의용군이 되어 잠시 할미집에 들린겁니다. 흰밥이라도 해먹이려다. 살려주세요 (울부짖는다)

마루에 서있던 마거릿이 신재민에게 방안을 향해 고개를 끄떡인다. 신재민가 방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하급병사 앞에 슢다.

신재민; (정일병의 총구를 치우며) 우린 그만 가지죠

정일병; 이 빨갱이 새끼를 죽여야죠

박종혁도 방안에 들어 갔다 나오며

박종혁; 정일병, 그만 가자.

S. 카메라가 벽에 걸린 노부부와 하급병사가 예전에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는것을 보여준다

S. 집을 멀리하고 이동하는중, 마당에 죽어있는 할아버지 시체, 그리고 부등켜 울고있는 할머니와 하급병사.

신재민; 눈썰미가 참 좋네요

마거릿; 기자이니까요.

S. 앞서 가는 해병대원들

김이병; (박종혁에게) 괜찮을까요

박종혁; 殺生有擇 (뜻없이 죽이지 말라), 걱정마, 진짜 빨갱이들 죽일 일 많으니까

김이병; (정일병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정일병님, 울고 계신건데요 (최하사도

약간 서글픈듯한 모습) 최하사님도,,

오하사; 김이병, 정일병하고 최하사 다 북에 가족들이 있잖아.

정일병; (김이병에게) 이 새끼야, 눈에 흙이 들어가서 그래. (김이병을 때린다)

최하사님도 흙이 들어 갔죠.

김이병; (읍소하듯이) 박종혁님,,,

S. 북한군 지휘소

천막 밑에서 작전 지도를 보고 있는 북한국 지도부. 북한 국기가 걸려있고 김일성 사진도 걸려 있다.

김상장; 최고 사령관동지께서 8 월 15 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라는 명령이요  
강대좌; 김상장 동지, 미군새끼들이 분명히 폭격으로 진군을 차단할테데  
김상장; 강대좌 동무, 속도가 생명이라는 걸 명심하시요. 적군들과 최대한  
근접하면 미군들이 쉽사리 폭격하지 못할것이요. 그러니, 부대원들을 아주 빠르게  
밀어붙여 근접전을 해야 하오.  
강대좌; 그럼 백병전으로

#### S. 한국군 진영.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 전열을 가담듬고 있다. 국군, 해병대, 그리고 일반  
민간인 노무자들, 어린 중학생들까지 여기 저기 분주하게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다.  
노무자들과 군인들은 진지공사를 한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은 탄환 운반 및  
군인들에게 장난삼아 총사격과 수류탄 사용법도 여기 저기서 배운다. 여학생들은  
노상에서 밥을 짓고있다. 마거릿이 여기 저기 사진을 찍는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10 명 정도 앉아있다.

정일병; (수류탄 하나를 들고 학생들에게 수류탄 투척 교육 ) 이게 세발수류탄이라  
하는거야,, 잘봐, 안전클립을 뽑고, 안전핀을 제거, 후 투척. 그리고 제빨리 고개를  
숙인다. 잠깐 (따라서 허리를 숙인 학생들 사이에 6,7 살 정도 꼬마들이 호기심에  
서 있는것을 보고) 야 느그 둘은 누구냐. (옆에 기관총 정비중인 채이병) 야 채이병  
채이병; 네  
정일병; (꼬마들을 보며) 야 들은 누구냐  
채이병; (애들을 보고) 아 게네들이요. 어제 2 소대 애들이 정찰나갔다가 길에서  
헤메고 있길래 데리고 왔답니다 (정일병에게 속삭이듯이) 부모들은 폭격에 죽은것  
같애요  
정일병; 그럼 애들을 다른데 보내야지.  
채이병; 정일병님, 지금 이판국에 어디로 보냅니까,, 박종혁님이 알아는 보고  
있어요

정일병; (애들에게 약간 으박지르듯이) 애들아 저리가,, (애들이 놀란듯 하지만  
다시 도망갔다 온다)

정일병; (애들을 내버려 둔채) 어디까지 했지  
학생 1; 제빨리 고개를 숙인다 까지 했습니다.  
정일병; 그래, (수류탄을 들고) 이고리를 빼고 안전핀이 제거되면, 터지는데 5 초,  
살상거리 15m.. 그러니까, 15m 이상은 던져야해. 알았나  
학생들; 넵 알겠습니다.  
정일병; 그럼 다 들 옆에 돌맹이들을 집는다.

학생들이 옆에 있는 돌맹이들을 집는다. 꼬마들도 작은 돌맹이를 집는다. 그리고 투척훈련.

S. M1919 .기관총 앞에 모여있는 학생과 채이병

학생 2; 야 이게 기관총이라는거네

학생 3; (제스처를 쓰면) 한번 뽀뽀뽀뽀 쏘면, 사람들이 낙역처럼 쓰러진데, 한번 쏘면, 천명

학생 2; 이 새끼 뺨치지 마라.

채이병; 니들은 나중에 총알이나 열심히 나르면 된다.

학생 2; 함 만져보면 안될까요

채이병; (학생 2 에게) 한번 만져 볼래,

학생들; 와

학생 2 가 채이병 옆에간다.

채이병; 잘봐, 자 총알을 여기 이리걸고 이걸 눌러, 뚜껑을 닫고 이걸 땡기고 그냥 쏘면 된다. 중요한점은 요부분 만지면, 느그들 밤에 손 못쓴다,

마거릿이 와서 사진을 찍으니,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념사진 찍는다.

S 개방된 곳에서 마거릿이 타자를 치며 간지러워 가슴, 사타구니를 병사들 앞에 무의식적으로 긁는다. 병사들은 마거릿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돌리며 침을 꿀꺽꿀꺽 삼킨다. 마거릿은 타자에 치느라 시선을 못느끼지만, 신재민이 다가

신재민; 빈대가 있는거 같은데, 이약을 자기전에 씻은후 뿌리세요. (약통을 하나 건네준다)

S. 냇가에서 마거릿이 목욕하고 나오다 정일병과 마주친다.

마거릿; 어머 당신같은 인간들이 이부근에 숨어있나요

정일병; (마거릿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짐작을 해서) 저기 (뒤쪽 숲은 가르킨다, 10 명의 병사들이 훑쳐보고 있다)

마거릿이 옷을 걸친채, 뒷쪽 숲으로 가서 병사들을 췌려보자, 병사들은 아닌척 한다

김이병; (마거릿을 보지 못하고) 오하사님, 망원경 가지고 왔습니다.

병사들이 마거릿의 존재를 김이병에게 알려주니.

김이병; 오하사님, 북한군이 저 언덕으로 오는지 확인 바랍니다. (다른 언덕쪽을 가르킨다)

S. 마거릿이 호롱불빛에 타자를 치고 있다가, 잠을 자기위하여 혼자 판초의를 풀밭에 깔고 누우려는데,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마거릿; 앓 (깜짝 놀란다)

다시 일어나 커다란 천막밑으로 간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출동대기 상태로 쪽 뻗어 자고 있다. 이리저리 돌다가, 신재민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자, 옆에 눕는다.

S. 아침, 다른 군인들은 다 일어났는데, 마거릿 주위의 10 명의 남자들은 마거릿 주위에 약간의 신체 접촉을 한체 계속 누워있다.

S. 자고있는 마거릿에 한국군 장교가 와서.

김필중 대위; 기상, 이새끼들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쳐자나. 아침 배식 곧 끝난다

가짜로 자고있던 병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마거릿도 일어난다.

김필중 대위; (마거릿에게 영어로) 왜 여기서 잠을, 우리 장교 막사에서 주무시지. 마거릿; 괜찮아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건 아니니까요

S. 마거릿, 신재민 그리고 세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풀밭에 앉아있다.

김필중; 어제 사단본부에서 취재에 잘 협조 하라고 명령이 왔는데, 저희가 깜빡 했습니다

마거릿; 괜찮아요. 저도 한국군과는 처음이지만, 특별하게 저를 대우하실 필요는 없어요.

김필중; 이쪽은 박중위, 이쪽은 지중위, 그나마 저희가 영어를 좀 한다고 착출 되었습니다. 박중위는 의과대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의무대있고, 지중위는 원래 평양에서 신학학교를 ,,

마거릿; 군중인가 보죠.

지중위; 아니요

마거릿; (군복위의 십자가 모양의 직책 표시를 보고), 그럼 이 십자가는



소대장

지중위; (견장의 먼지를 터니 밑에 십자가 밑에 동그란 마크가 들어난다) 이건 소대장 마크이고, 지금 전투 소대장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군종이라는 보직이 없습니다.

박중위; 신재민는?

신재민; (한국말로) 육군 정보국입니다.

박중위; 마거릿과는 어떤

신재민; 사령부에서 통역 장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때, 마거릿이 펜과 작은 노트를 들고.

마거릿; 그럼 Mr. (김필종을 보고)

김필종; 아 제가 소개를 안했네요. 저는 김필종이고 대위, 연락장교입니다.

마거릿; 주업무는

김필종; 미군과 정보 교환입니다.

마거릿; 전황의 상황은 어떤가요

김필종; 내일 쯤이면 북한군이 여기로 바로 밀고 올거고 아니면 우리라도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마거릿; 마지노선같네요. 그럼 여기서 혹 밀리면

김필종; 다음은 경주고 거기서 밀리면 동해 앞바다에서 물귀신이 되겠죠.

마거릿; 이곳은 미군의 지원없이 한국군으로만 방어한다는데, 문제는 없나요

김필종; 모든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육군, 해병대, 심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도 의용군 까지

마거릿; 하지만, 미군측에서 한국군이 너무 훈련이 안돼 있어 한국군과 작전하는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필종;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저희가 개전 초기 너무 쉽게 무너졌고, 사실 훈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기 지중위를 보십시오. 북에서 부모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인민재판에 넘겨져 살해 당했지만 이곳에서 누구못지 않게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보셨을 거예요. 우린 총력적을 여기서 다할것입니다

마거릿;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총력전으로 밀고 올텐데,

김필종; 북쪽 사람들이 남쪽사람보다 호전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쪽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천년 전에도 북쪽 사람들의 이곳을 침략했지만 바로 제가 서있는 이곳 사람들이 한반도를 통일했으니까요. 우리는 이곳을 지켜낼것입니다.

S. 마거릿이 지중위와 박중위를 인터뷰할때,,

김필종; 야, 김상병, 아침은 어떻게 됐어

김상병; (조그만한 밥상에 한국식 밥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 들고온다)

별차린거는 없습니다.

마거릿; (유난히 많이 뜬 밥의 양과 한국식 밥상을 보고) 특이하네요.

김필종; 뭐가

마거릿; 보통, 우리는 식탁에 밥을 차리는데, 한국은 식탁을 통째로 들고 다니잖아요.

김필중; 취재하러 오신다고 우리 김상병이 특별히 한국식으로 준비 했습니다.

김상병; 많이들 드십시오. (뒤돌아 가려다) 아 그리고 여기 준비하라고 하신거 (수통을 건네준다)

김필중;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고) 좋아, 자 다들 식사들 하시죠

다들 모여 밥을 먹는다. 신재민가 마거릿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마거릿이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장교들; (놀라움으로) 와,

박중위; 한국사람보다 젓가락질은 훨씬 더 잘하네, 어디서 배웠나?

마거릿; 홍콩에서

김필중; 자 (수통을 빈밥그릇에 조금씩 붙는다, 그리고 마시자고 한다)

마거릿; (입에 대는 순간, 아주 쓰다는 표정) 이게 뭐죠

김필중; 하하하, 소주라는 거예요.

마거릿; 보드카와 비슷하네요. (단숨에 마신다)

약간 취기가 돌아

김필중 대위; 야 지중위 한곡조 뽑아봐

지중위가 박향림의 “오빠는 풍각쟁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후창을 같이 한다. 그러다 마거릿도 같이 따라하면서 춤도 춘다.

### 1 절

오빠는 풍각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거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깧쟁이야

### 2 절

오빠는 트집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 실여 난 실여 내 편지 남 몰래 보는 것 난 실여

[명치좌](#) 구경갈 땐 혼자만 가구

심부름 시킬때면 엄병땡하구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 3 절



오빠는 주정뱅이야, 머  
오빠는 모주꾼이야, 머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밤늦게 술취해 오는것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하구  
월급만 안 오른다구 짜증만 내구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다 함께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춤추고 노래한다

S.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있다. 장군은 뒷모습만 보인채 연설을 한다. 듣는 병사들, 학생들의 긴장감이 얼굴에 들어 난다.

백준장; 오늘 이자리에 제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나라는 망할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명심하라 여기서 후퇴하는 자는 나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 여기 있는 전대위가 쓸것이다. (옆에 서있는 전대위 계급장만 보인다)

마거릿은 장군뒤에서 한장의 사진을 찍는다.

S. 밤새 한국 포병들이 집중포격하는 장면

S. 이른 아침, 숲이 우건진 곳은 아침안개 시야가 어둡다. 적막함이 돌고 적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한국군 진지쪽에서 반대쪽 나무숲에서 나타날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한국군 진지는 2 열로 구축되어 있다. 1 열 진지는 국군, 2 열진지는 해병대와 학생들,

S. 마거릿과 신재민, 그리고 한국군인들이 있는 1 열 진지

마거릿이 긴장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진을 찍고있다. 옆에 있는 1 사단 군인들 (정창수이병 와 이진석이병) 나란히 앞에 총을 견누고.

정창수; 진석아, 같은 동네 불알 친구끼리, 오늘 여기서 같이 죽을란가 보다

이진석; 병신새끼, 뭐라하노, 우린 살아야 한다. 죽는다 소리 그만해라

정창수; 기억하나

이진석; 뭘

정창수; 왜 같이 서리하다 걸려서, 도망가다 내가 발이 닫혀는데, 니가 날 업고 땀겨

이진석; 그래, 하지만 둘다 잡혀서 엄청 맛았지

정창수; 니가 그때, 나 버리고 갔으면, 니는 괜찮았을 텐데

이진석; 반대로 되면, 니는 나 버리고 갈래

정창수; 느그 어매는 잘있나

이진석; 그래, 난, 애기가 곧 태어난데매  
정창수; 이번 겨울쯤..  
이진석; (울먹이며 두손을 꼭 잡으며) 꼭 살자.

S. 사선 반대편 쪽에서 단발의 총소리와 더불어 불쑥 버선발의 애엄마가 두아이를 데리고 숲속에서 뛰어 나온다. 이때 긴장한 한국군 한명이 오인 사격으로 애엄마가 쓰러진다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지중위; 사격중지, 사격중지

마거릿이 진지에서 막 뛰어나가려 하자  
신재민; (마거릿을 붙잡고) 마거릿,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마거릿; 가까이 가야한다고 했잖아요

마거릿이 쓰러진 피난민에게 뛰어나가자 마지못해 신재민도 뛰어간다. 한곳에 애엄마가 쓰러져 있고 그품에 두아이가 (2 살남자 아이, 6 살 여자아이\_이금화) 울고 있다. 마거릿 사진을 찍고, 신재민가 6 살 아이를 안고 마거릿이 2 살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북한군들이 사격을 하면 돌진해 들어 온다. 그리고 마거릿이 안고있는 2 살짜리 아이가 총을 맞는 동시에 마거릿의 얼굴에 온통 피가 된다.

S. 한국군쪽, 북한군이 나무숲밖으로 진격해 나오자 사격을 한다

S. 마거릿, 신재민은 각각 아이를 안고 한국군 진지로 되돌아 댄다. 하지만 쌍방의 총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댄다

S 한국군 진지쪽

마거릿은 자신이 안고있는 아기의 죽음을 인지한다. 그순간 포탄이 옆에 터지며, 아기의 시체를 놓치고 쓰고있던 헬멧도 날아가 정신이 멍해진다. 그때 마거릿에 다가온 한명의 한국군 병사. 얼굴이 피범벅이되어 외국인줄도 모른다

병사 3; (한국말로) 괜찮아요

마거릿이 아기를 놓친 사실을 알고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없다. 계속 날아드는 총탄들, 그리고 반격하는 한국군. 간신히 헬멧을 쓰고 너무 큰 총탄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총맞아 죽어가는 옆의 한국 군인들, 소리치는 군인들. 열심히 사격하는 정창수 이진석. 옆의 한병사는 눈에 총을 맞고 뒹군다. 정창수가 그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다.

어린 병사 4 은 겁에 질려 총도 쏘지 못한다. 콜트 45 권총을 든 전대위 (독전장교)가 와서

전대위; (권총을 병사 4 의 머리에 대고) 빨리 일어나서 총을 쏘 개새끼야 안그러면 다 죽어. (미친듯이) 니네 새끼들 제대로 앞에 보고 총을 안쏘면 내가 죽인다.

전대위가 얼굴에 피물어 옆에 처박혀 있는 마거릿의 멱살을 잡으며

전대위; 뭐야 이새끼는 너는 왜 총도 없어 새끼야 (순간 마거릿이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거릿; (영어로) 제 카메라좀,

전대위가 옆에 있는 카메라 찾아 집어 마거릿에게 준다.

전대위; (참호를 따라 걸어가며) 야 새끼들아 똑 바로들 쏘. (사라진다)

마거릿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필름이 떨어진것을 알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필름을 꺼내 새로 간다.

S. 일제히 수 많은 북한군들이 숲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한국군 1 열 진지로 돌진한다.

S. 한국군 기관총 진지, 박하사과 채이병이 내달오는 북한군들에 기관총을 쏘고있다. 그래도 북한군이 계속 밀려온다.

S. 1 열에 있는 몇몇 한국군들이 참호에서 빠져나와 뒤로 도망간다. 전대위가 그중에 한명을 사살하고 참호속으로 겨누며  
전대위; 이새끼들, 도망가는 새끼는 다 죽을 줄 알아

S. 북한군 탱크가 1 열 진지를 향해 들어 온다.

S. 지중위가 몇몇 군인들을 이끌고 탱크있는데로 가서 마주카포로 쏘는데 한발이 빛나간다. 그리고 재장전 탱크 한대를 잡는다.

S. 한국군 작전본부.

작전지도 앞에 있는 백준장 과 참모들.

김필중; 장군님, 1 선이 위협합니다.

백준장; 예비부대 빨리 넣어

S. 2 열에 있던 박종혁를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1 열로 전진하여 들어오는 북한군을 사격전을 이룬다. 싸여가는 시체들.

이때 박종혁가 참호에서 마거릿을 보고,

박종혁; 야 김이병 (마거릿을 가리키며) 뒤로 빼

김이병이 마거릿 있는대로 달려가서 잡는다.

김이병; (영어로) 헤이 마거릿

그때서야, 마거릿이 피묻은 얼굴을 한번 닦는다. 김이병인줄 알아본다.

김이병 마거릿을 끌고 나와 2 열 진지로 후퇴하려 한다

S. 김이병이 총을 쏘며 마거릿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마거릿 손에 들고있던 카메라가 놓친다. 마거릿이 다시 주으려 하는순간, 접근하는 북한군, 김이병이 그 북한군을 쏘고 카메라를 줍는다. 그리고 씨익 웃으며 카메라를 마거릿에 주는 순간. 김이병 총에 맞고 쓰러진다. 이모습을 박종혁와 정일병이 보고 달려온다.

마거릿이 어쩔 줄 모르는 순간, 박종혁가 나타나 마거릿을 끌고 2 열 진지로 향하고 정일병이 엄호 사격으로 북한군들에게 총격전을 벌인다. 그와중에 정일병이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진다.

S. 1 열의 진지가 조금씩 북한군에게 압도당하고 백병전이 벌어진다. 이때 북한군 탱크가 또 다시 돌진해 온다.

S. 한국군들이 2 열로 후퇴한다.

지대위; 이새끼들 어디가,

정창수 2 열로 도망가려 할때 권총으로 정창수를 겨눈다

지대위; 거기서 새끼야. 어디가, 여기서 싸워야지.

이때, 이진석이 뒤에서 지대위를 쏜다.

이진석; 야 창수야 빨리 나가자.

S. 압도적인 북한군의 쇄도. 기관총병인 박하사 사수와 채이병이 기관총을 메고 2 열로 간다. 박하사이 총에 맞고 기관총을 떨어뜨리자 채이병이 기관총과 들자, 학생 2 와 3 이 나타나 기관총 탄약통과 채이병과 함께 기관총을 들고 2 열진지로 간다.

S. 한국군 지휘소; 포격이 쏟아진다

백준장; (무전기를 받고있다) 지금 1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김대위, 미군측에서 지원은

김필중; (다른 무전기를 대화하며) 그쪽도 지금 대규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백준장; 포격지원은.

김필중; 현재 전 포대가 미군쪽 지원으로

백준장; 황대대장에게 2 열은 무조건 사수하라고 해.

S. 북한군 탱크가 1 열을 지나 2 열능선으로 들어오려 할때, 지중위가 탱크위에 올라가 수류탄으로 탱크를 폭파시킨다.

S. 격렬한 총격전 그리고 너무 가까워진 남북한군. 탄약도 떨어져가고 서로 수류탄을 1,2 열 진지에서 던지고 또 던진다.

S. 북한군이 한국쪽 1 열 진지를 돌파해 국군의 2 열진지와 교전

S. 학생 3 와 채이병이 기관총을 쏘는데 탄약이 다 떨어진다

채이병; 총알 총알

학생 2 가 무거운 기관총 탄약을 목에 매고 달려오고 있다.

채이병; 임마 좀 더 빨리 뛰어야 지. (하지만 웃는다)

S. 마거릿, 꼬마 1 와 2 가 참호속에 귀를 막고 있다. 옆에 있던 오하사이 죽은 병사들의 철모를 가지고 와 아이들에게 씌운다. 마거릿이 그장면을 사진 찍는다.

S. 2 열의 황대대장과 병사들이 진지에서 격전을 벌이며, 병사가 한명 달려온다

병 5; 대대장님, 좌익이 돌파 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대대장; 빨리 그쪽으로 지원을 보내

참호속으로 날아온 수류탄이 터지고 대대장과 옆에 있던 다른 장교도 죽는다.

S. 최하사이 있는 참호에도 수류탄이 떨어지자, 참호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참호안에 수류탄이 터진다. 이때 순간적으로 근접거리에 북한군과 마주친 최하사. 총을 쏘니, 북한군이 움츠러 드는데, 총알이 격발 불량으로 발사 되지 않는다. 북한군이 방아쇠를 당겨 막 쏘려하자, 들고 있던 총을 북한군에게 던지고 몸을 참호로 던짐과 동시에 죽어있는 병사의 총을 주워 막 다시 총을 쏘려는 북한군을 죽인다.

최하사; 씨발, 죽다 살았네,,

S. 학생 2 가 기관총 탄약띠를 목에 매고 탄약통을 들고 채이병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탄약이 다 떨어져 가는 채이병. 마침내 탄약이 다 떨어지니 북한군 한명이 접근해와 학생 3 과 채이병을 총을 쏜다. 채이병이 총에 맞은 상태로 옆에 있던 소총으로 북한군을 쏘후 쓰러진다. 학생 2 가 눈물이 시커먼 흑면지가 뒤덮은 얼굴로 흘러내린다. 그리고 탄약을 다시 장전하고 쏘기 시작한다. 그때 포탄이 날라와 소년의 얼굴이 사라진다. 몸과 손이 기관총을 잡고있는 모습.

S. 2 열 진지에서 수류탄을 철모에 나르는 학생 1. 막 달린다. 죽은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수류탄이 철모에서 쏟아진다. 옆에 있던 병사가 그 수류탄을 집어 앞으로

던진다. 두번째 던지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수류탄이 . 학생 1 옆으로 굴러온다. 학생이 1 이 그것을 잡는 순간. 옆에 있던 병 6.

병 6: 빨리 던져.

학생 1 이 막 더지는 순간 공중에서 수류탄이 터져버린다. 학생이 팔이 사라져 버린다.

S. 북한군이 2 선까지 넘어온다.

S. 진지안에 있는 마거릿, 꼬마 1 와 2, 박종혁와 몇몇 해병들. 신재민이 이금화를 안고 들어 온다..

신재민 ; 마거릿, 여기 (신재민가 철모를 썬 금화\_6 살짜리 아이\_를 마거릿에게 인계 하며), 꼭 살려주세요.

이때 여러명의 북한군들이 들이 닥치고 있다.

박종혁; 착검

다른병사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모두 도검을 빼서 한명 한명씩 각자의 총에 착검한다 그리고 달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신재민과 다른 해병대원들이 진지위로 함성과 함께 달려 나간다. 그리고 근접 총격전과 백병전.

마거릿은 금화와 다른 꼬마들을 안고 최대한 진지속에 움츠리고 있다. 진지 위의 치열한 백병전으로 시체 하나가 마거릿과 아이들위로 떨어진다. 지속되는 총격전과 백병전으로 몇구의 시체가 더 떨어진다.진지안에 시체가 계속 싸여 거의 지표와 만닿게 되자 심지어 그 시체들 위에서 백병전을 한다. 마거릿은 아이들은 거의 질식사. 그리고 암전,

S. 한국군 지휘소

급히, 척후병이 들어온다

척후병; 장군님, 2 열이 계속 밀려오는 적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백준장; 황대대장은 어떻게 됐어

척후병; 전사한거 같습니다.

백준장; (무전병에게) 포대에 지금 2 열 능선을 포격하라 해

김필중; 장군님, 하지만 그림 남아 있는 아군들도

백준장; 어쩔수 없다. 당장 포격하라고 전해,

김필중; 좀 기다리랍니다

백준장; 지금 포격안하면 내가 가서 포병들 총살시킨다고 당장 포격해.

S. 백병전 와중에 포탄이 떨어진다. 암전

S. 죽어있는 탄약 운반 학생들, 시체들, 그리고 팔다리가 잘린채로 돌아다니는 부상병들..

S. 온통 까맣게 화약가루와 흙먼지에 뒤덮힌 정창수가 녀이 나간채 걷고있다. 그결본 참호속의 이진석.

이진석; 창수야

정창수가 기계적으로 돌아 총을 한방쏘지만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빗나간다. 그러다 친구 진석이라는것을 알아본다

이진석; 창수야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 우리 살았다. 산다고 했잖아 새끼야  
정창수; 그래 살았다. 우리 이번에는 살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수 있을까

이진석; (총을 창석에게 겨누며) 창석아

정창수; (놀라며) 왜

이진석; 우리 살아야 한다. 니 태어날 얘기하고 우리 업니를 위해 (창수의 총구를 잡고 자기 다리에 겨누게 한다)

정창수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리에 총구를 겨냥한다. 서로 웃으며 총을 쏜다.

S. 신재민과 박종혁가 시체들을 헤치며 마거릿를 발견한다. 그리고 마거릿은 막혔던 숨을 내쉰다. 마거릿 품에 있던 아이 셋은 아직 숨을 쉬지 않는다. 박종혁와 신재민이 아이들을 만지는데, 두 아이는 죽고 이금화는 아직 숨어 붙어있다.

S. 야전 병실, 급조된 간이 천막에 수많은 환자들

지프옆에 손을 떨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마거릿

신재민; (손수건을 마거릿에게 건네주며) 여기

마거릿; (얼굴의 피를 닦아낸다, 마거릿은 여러 충격으로 눈이 붙고 얼굴에는 여러 상처가 있다, 그리고 신재민 팔에 피가 나는거을 보고) 여기 피가

신재민; (그제서야 자기 팔에 부상을 입은걸 보고)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수있죠

마거릿; 무엇을

신재민; (목에 걸린 카메라를 보며) 그 와중에도 사진을 찍는거요

마거릿; 어린 학생마저 총을 드는데요.

부상당해 들것에 실려오는 지중위를 본 마거릿,

마거릿; 어떻게 됐죠

지중위; (고통스럽지만 웃으면서) 우리가 지켜 냈어요. 막아냈다고요.

박중위가 다가온다.

박중위; 여기있었네요. 아이는 정신이 돌아 왔어요.

마거릿; (안도하듯이) 정말 잘됐네요. 어디에 있죠

박중위; 절 따라 오세요.

박중위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S. 간이 수술대위에 급히 절단 수술을 위해 톱질을 한다.

부상병들 옆에 누여져 있다. 어떤부상병들은 상처가 찌어 들어가 벌레들도 있다. 다른 군의관이 쓰러져 있는 병사를 가망없는 자와 치료해야할 자들로 구분한다.

군의관; (한명씩 가르키며) 치료, 가망없음, 가망없음, 치료, 가망없음

가망없음으로 판명된 부상명들은 위생병들에 의해 천막 뒤로 옮겨진다  
마지막 가망없음으로 판명된 해병 정일병을 본 마거릿.

마거릿; (박중위에게) 살릴수 없나요

박중위과 옆의 군의관하고 이야기한다.

박중위; (마거릿에게) 복부에 총상인데, 수술을 여기서 할수가 없어요

마거릿; 왜죠

박중위; 수술을 할줄 아는사람이 여기 없어요

마거릿;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박중위; 전 그런수술을 해본적이 없어요

마거릿; 저 사람이 저를 살리려고 저렇게 됐고 살수도 있는데 그냥 죽게 하면 안돼  
잖아요

박중위; 그래도 피가 부족해요. 보세요 피가 없어서 출혈로 저기 죽어가는 병사를

정창수와 이진석도 간이 병동에 실려와있는데, 정창수 이병이 과다 출혈로  
죽어간다.

마거릿; 그럼 제것을 쓰세요. 저는 O 형 이거든요.

박중위; 위생병, 가서 야전 침대하나 가져와

S. 박중위가 앉아서 야전 침대위의 정일병을 수술하기 위해 앉는다. 간이  
수술침대위에 마거릿이 동시에 수혈한다.

박중위; 의무병, 줄로 묶어

의무병이 줄을 갖고와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다.



박중위; (신재민에게) 마취제 같은게 없으니, 머리부분을 꼭잡으세요.

신재민이 정일병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수술이 시작되자, 고통에 못이기는 정일병 정신을 잃고 박중위가 정일병의 복부에서 총알을 빼낸다

S. 야전병원 천막 뒤쪽\_ 쌓여가는 시체들. 정창수가 시체로 실려 나온다.

S. 천막앞

신재민; (팔에 수혈을 마친채 나오는 마거릿에게 다가가며) 살수 있다고 하네요  
마거릿; 아이는 어디있죠.

신재민가 마거릿을 데리고 나무그늘밑 야전 침대로 간다. 위에 아이가 자고 있다.

마거릿; 이름은

신재민; 이금화

마거릿 ; 이쁘네요

마거릿; (신재민에게 금화를 보며) 이 소녀는 어떻게 하죠

신재민; 일단 부산으로 보내야 하겠죠. 그곳에 고아원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S. 트럭위에 올라가는 민간인들.

마거릿이 금화를 꼭 끌어 안는다.

마거릿; (금화를 보면, 영어로) 금화, 너를 꼭 보러 갈게

금화가 트럭에 태워져 멀리 사라진다. 눈물과 함께.

#### **SQ4. 부산\_9월 10일\_피난민들 그리고 소녀를 다시 만나다.**

S. 가방을 맨 신재민과 카메라를 맨 마거릿 지프위를 타고 간다.

운전병; 부산 다왔네요.

지프에서 내리는 마거릿과 신재민, 부산시내를 들어 가며 이곳저곳 부산 풍경과 피난민들을 사진 찍는다. 마거릿은 전투에 한쪽 눈이 멍들고 부어있고 얼굴에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다

S. 거리 좌판에서 풀빵, 번데기, 개불을 판다.

마거릿; (풀빵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신재민; (난감하듯이) Glue bread.

마거릿; Glue (고개를 갸웃똥), (번데기를 가리키며) 이걸요

신재민; silkworm

마거릿; (개불) 특이하게 생기 이걸 뭐죠.

신재민; Dog balls.

마거릿; (놀란듯이) what!

신재민; Can you try?

마거릿; No way.

S. 신재민와 마거릿, 풀빵과 번데기를 먹으면서 걷고 있는데, 한쪽에 작은 밀가루 포대를 배급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식량 배급때문에 아귀다툼을 하고있다  
밀가루 포대를 하나 잡고 길에 누워 있는 남자, 그리고 그걸 다시 서로 뺏으려 하는 세 남자들.

남자 1; (뺏으려 하는 남자)이 새끼야 내놔

남자 2; (뺏기지 않으려는 남자) 이 쌍노무 새끼야 이거 내거야

남자 3; (또 뺏으려는 남자) 내가 먼저 잡았어, 빨리 놔라

남자 1; 이 새끼 말이 안통하네 (주먹으로 남자 2 를 친다)

남자 2; 이 쌍노무 새끼가 니가 쳤냐, 니 몇살이야 새끼야, 좃도 어디 어린노무 새끼가.

남자 1; 이새끼가 정말 죽고 싶냐 (남자 2 를 발로 차고 얼굴을 짓밟는다.

이때, 남자 3 이 밀가루 포대를 들고 뚫는다.

S. 그옆에는 우유죽을 끓여 배급하고 있다. 여기는 주로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줄서있다. 꼬마 아이 혼자 와서 우유죽을 배급받는다. 마거릿이 사진이 찍고 있다.

꼬마 3; 좀 더 주세요

배급자; 임마 됐어, 줄서있는거 안보여, 빨리 꺼져 (국자로 내려칠려 한다)

남자 4; (꼬마 3 에게) 뒤에 줄서 있느거안보여

아이가 걸어 나가고 마거릿이 아이를 따라 간다

S. 아이가 우유죽을 받아서 가마니로 지은 집에 들어가는데, 아픈 애엄마와 3 명의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다.

마거릿이 신재민가 들고 있는 가방을 손짓한다.

신재민; (쇼콜릿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여기

마거릿; 사진을 찍는다.

신재민; (신재민 가방을 치며) 이럴려고 쇼코릿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나요

마거릿; (웃는다)

S. 소매치기\_사진찍는 마거릿을 본 골목길의 아이들, 그중에 우두머리 아이가, 마거릿에 수신호로 목표를 찍는다.

소년 1; 야들야 저 카메라다 알았지

S. 신재민가 뭔가를 사려고 마거릿과 거리를 두자, 다리가 하나 뿐이 아이가 마거릿에게 다가간다. 마거릿은 카메라로 그 아이를 사진을 찍고 초코릿을 건네준다. 그때 다른 아이들이 달라고 달려든다. 그런 와중에 한 아이가 마거릿의 카메라 끈을 절단하고 카메라를 갖고 댄다. 이때 마거릿이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없어진걸 알고 옆에 다른걸 구경하고 있는 신재민에게,

마거릿; (저쪽의 뛰고 있는 소년을 가리키며) 내 카메라  
신재민; 거기서 (아이를 향해 뛰며 열심히 추격전이 벌어진다)

골목길에서 다른 아이가 일부러 와서 부딪힌다. 신재민가 추격하던 아이와 멀어지지만, 다시 아이를 잡기 위해 댄다

S. 막다른 골목길까지 댄 신재민 와 소년.

신재민; 그 카메라 내놔.

그때 뒤에서 두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신재민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려친다. 그리고 달아 내려는 아이들. 이때 헌병들이 마거릿과 함께 나타난다. 헌병들이 총을 겨누자 아이셋은 멈추어 선다.

신재민가 그때서야 일어난다. 카메라를 아이손에서 뺏으면서 아이를 주먹으로 한대 친다. 헌병들이 약간 놀란다. 신재민가 헌병들에게 괜찮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한다.

신재민; 됐으니까 빨리들 꺼져. (아이들을 보내준다)

마거릿; 괜찮아요

신재민; (카메라를 마거릿에게 돌려주며, 씩 웃으며) 전쟁은 아이들을 아이들 답지 않게 하네요.

S. 고아원앞.

마거릿; 이게 몇번째 고아원이죠.

신재민;네번째요. 트럭 운전사 말로 이동네 썸이라 했는데

마거릿; 이부근에 도대체 몇개의 고아원이 더있죠.

신재민; 5 군데 정도 더있다고 해요

사진을 찍는다

안원장; 어디서

신재민; (마거릿을 가리키며) 이쪽은 미국 신문사 기자이고, 저희가 아이를 찾거든요. 6 살 여자 아이인데, 이금화라고 한 2 주전에 왔을테데요

안원장; 채선생님, 잠깐 이리좀 와봐요

채선생; 네, 원장님,

안원장; 우리 원생중에 이금화라고 있다. 2 주전에 왔다는데

채선생; 잠깐만요, 요즘 워낙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안원장; (신재민에게) 근데 무슨일로

신재민; 저희가 전쟁터에서 그아이를 찾았는데, 이쪽 어디 고아원으로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요.

안원장;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은 알고 있나요. 간혹 자기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서..

신재민; 네

마거릿은 아이들을 사진 찍는다.

채선생; 원장님, 이금화라는 아이는 없는데요

안원장; 고마워요 채선생, 이곳에도 일주일에 하나씩 고아원이 생기고 워낙 난리통이라, 사람찾기 쉽지 않을건데,,

신재민; 감사합니다.

S. 신병 징집. 헌병들 그리고 모집관이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 신재민와 마거릿도 다가간다.

남자 4; (남자 5 에게) 임마, 빨리 피하자

남자 5; 왜

남자 4; 딱 보면 몰라, 군대 끌고 가려는거지. 어제도 역전앞에서 남자란 모든 남자들을 강제로 태우고 전선으로 그냥 갔다하더라. 가면 그냥 총알받이 되는겨.

모집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원하면, 일본에 가서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남자 6; 그게 뭔데요

모집관; 카튜사라고, 미군부대 소속이고 미군들처럼 밥먹고 옷입고 근무는 일본으로 가서 하는것입니다.

남자 7; (나이 50 정도의 남자) 그럼 저도 지원해도 됩니까

모집관; (나이든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자격 미달,

남자 7; 자격이 됩니까

모집관; 신체건강하고 18 세서 30 세까지, 영어좀하면 더 좋고

남자 8; 정말로 일본으로 가는건가요

남자 6; 전쟁은 여기서 났는데, 일본으로 왜 가는교. 거짓말 아닌교

모였던 시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모집관

모집관; 어차피, 여러분들 곧 전선으로 다 나가야 합니다. 빨리들 차에 타세요.  
배떠나야 하니까. 야 헌병! 빨리들 도와드려

헌병들이 젊은 남자들을 차에 태운다 자발반 강제반.

S. 약국안;

약사; 돈이 없으면 못줘요.

김원중; 제가 다음에 갔다 드릴게요. 지금 애없마가 아파서..

약사; 이사람아 이 난리판에 당신 같이 사연없는 사람이 한둘 인줄알아. 돈 갖고 오라고.

이때 약국에서 나오는 김원중, 그걸 본 헌병 1

헌병 1; 어이 거기

헌병이 부르는 반대 길로 가려 하는 김원중의 앞에 다른 헌병 2가 길을 막는다.

헌병 1; 못들었어, 내가 부르잖아.

김원중; 저를요.

헌병 1; 이새끼 간첩아니야

김원중; (놀란듯이) 아니에요, 약사러 온거예요

헌병 1; 나이가

김원중; 망설이며 35 인데요 (실제 나이는 25)

헌병 2; (위아래를 보면서) 당신 정말 35 세 맞아.

헌병 1; 당신 집이 어디야, 집에 가서 확인해서 거짓이면, 바로 총살이야.

김원중; (집에 질린듯) 피난을 와서요. 집이 없어요

헌병 2; 집도 없으니 잘됐네 빨리 가자고 (총으로 밀친다)

김원중; 제 아내가 아파서 약을 사러 온거라고요

헌병 1; 이 새끼야, (김원중의 양손을 보면서) 약사러 온놈이 약도 없고, 좋은 말로 할때 빨리 가.

김원중; 돈이 없어서,, 아내한테 가야해요

헌병 1; (총을 들이대고 발로 뒤를 차면서 밀면서) 약살돈 벌려면 빨리 가자고,,

마거릿; (신재민에게) 군인들을 징병하나 보죠

신재민; 카툰사라고 하네요

S. 김원중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트럭에 실려 간다.

S. 마거릿 혼자 있고, 술집들이 즐비한 거리, 휴가중인 미군을 부르는 창녀들을 사진을 찍는다. 창녀들은 거부 반응 없이 웃으며 포즈 까지 취한다.

호머, 키즈, 하우스만 대위가 술에 상당히 취해 술집 가게문을 나오고 있다. 호머와 키즈는 양쪽에 한국여자 한명씩, 총 네명의 여자를 안고있다

키즈; (웃는 있는 여자들을 양쪽에 안고 있으며 하우스만에게) 하우스만 대위가 왜 남다르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순간 마거릿과 마주친다)

키즈; 헤이 마거릿, 우리가 여기서 보네요

마거릿; (술냄새를 느끼며) 언제부터 마셨길래,,

키즈; 여기 술집 꽤찮은데, 들어가서 한잔해요

호머; 키즈, 여기는 남성용 술집이야

하우스만; (손에 들고 있는 양주병을 마시며) 아니아니, 남성전용

키즈; 이쪽은 무슨일로

마거릿; 고아원을 찾느라고

호머; (술에 취해 비아냥 거리듯이) 고아들까지 신문에 내려고..,,

마거릿;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사로 내는게 더 흥미로울 듯한데,

키즈; (호머와 하우스만을 끌면서) 자 갑시다.

호머; Bitch!

마거릿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응대한다.

S. 유엔마담거리; 유엔마담들이 일하는 구역, 구역 앞에 한국 건달들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 유엔마담들이 미군들에게 호객 행위를 한다.

창녀 1; (미군들에게, 가슴을 가리키며 영어로) 10 센트,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월달러..

그러다 미군들에게 마거릿이 다가가 주변 영어로 웃으면서 이야기 하며 주변의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창녀들은 마거릿을 오해한다

창녀 1; 야 미친년아 왜 남의 영업중인 나와바리에서 낄쥌데는겨, 요즘은 이것도 국제적으로 와서 하나.

마거릿; (서툰 한국말로) 나 미친년 아니에요.

창녀 1; 야 제 방금 뭐라 그랬니, 한국말했지,, 했지..

창녀 2; (창녀 1에게) 야 미친년아, 미친년 아니라네,, 하하하

창녀 1; (마거릿에게) 미친년 아니면, 너도 우리같은 년이냐,

창녀 2; 정말 유엔마담이 오셨네,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마거릿; (웃으면서 영어로) 주변에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창녀 1; 도대체, 이년이 살살 쪼개면서 뭐라는거야, 한판 붙자는거야

창녀 2; 웃으면서 (창녀 1에게) 지금 흑 너랑 한번 그거 하자는 가보다. 서양것들은 여자들도 엄청 빨아 제끼다던데,,

창녀 1; 텐달러, 돈내, 그럼 해줄게 (헛바닥을 내민다)

이때 신재민가 달려온다.

신재민; (창녀들에게) 이부근에 고아원이 있다 하던데,  
창녀 2; 몇군데 있죠.  
신재민; 이쪽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던에여  
창녀 3; 고아원은 허구한 데 놔두고 이쪽에 다 세우는 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새로 생긴데가 하나있어요  
창녀 2; 어디  
창녀 3; 왜 순자가 맨날 일하고 나서, 애들 만나러 가잖아  
창녀 2; 그게 고아원이 있어, 몰랐네  
창녀 3; 그럼 너같으면 애들 옆에다 두고 이 일할래  
창녀 2; 어머 언니 뭐라고해요, 난 애없어요, 과부지,  
신재민; 그 고아원 이름이  
창녀 3; 천사의 집, 피난온 수녀분들이 한다던데,  
창녀 1; (신재민에게) 어머 우리 멋진 (계급장을 보고) 젊은 소위님은 나를 찾지 고아원은 뭐하러 찾아.  
창녀 3; 야 고마해라, 저 미남 소위가 너같은 유엔마담을 뭐하러 찾아,,

신재민 마거릿에게 영어로 천사원에 갔던 운전수이야기와 천사원 대하여 설명한다.

창녀 1; 어마 이분 영어도 잘하네, 딱 네 스타일인데,,  
창녀 3; 미친년아 그만해라,, (지나가는 미군들을 보며) 야 저기 손님온다.. Hey, come on

마거릿과 신재민 천사의 집으로 향한다

S. 천사의 집, 마거릿과 신재민가 가파른 언덕을 오라가니 간이 간판이 보인다. 수녀들이 여기 저기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

신재민가 수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한다. 마거릿은 고아원 아이들의 다양한 사진들을 찍는다. 한살부터 10 살까지의 아이들.

S. 고아원 사무실.

앉아서 기다리며 원장 수녀와 대화하는 마거릿, 그리고 옆의 신재민.

마거릿; (원장수녀에게) 미국사람들이 여기 사정을 알면 많은 도움을 주려 할거예요  
원장수녀; 고맙네요. 미국신문에 내 주신다니..

한 수녀님이 금화를 데리고 나타난다. 금화가 얼굴에 멍과 상처투성이의 마거릿의 얼굴을 보고 약간 머뭇거리자, 마거릿이 가서 금화를 안아준다. 그러자 금화가 울기 시작한다.

수녀가 마거릿, 신재민, 금화가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준다.

마거릿; (금화에게) 다시 또 보러 올게, (그리고 작은 곰인형을 선물한다). 이건 내 아빠가 어렸을 때, 줬던건데, 자 선물이야.

수녀; (금화에게) 금화야, 아까 가르켜 줬잖아.

이금화; (인형을 안고 고객을 깊숙히 숙이며) Thank you.

마거릿이 떠나려하자, 금화가 달려와 다시 안긴다.

S. 고아원을 나오며

마거릿; 신소위에게도 여동생이 있다 하지 않았나요

신재민; (말이 없다)

마거릿; 아직 소식은?

## SQ5 인천상륙작전

S. LCVP (landing craft, vehicle, personnel) 상륙정에 한국 해병들과 함께 이동중.

배가 흔들리는 와중인데도 마거릿은 신재민에 기대어 자고 있다. 마거릿의 얼굴에는 아직도 멍과 상처 투성이.

최하사; (조이병에게) 야 오늘이 몇일째지

조이병; 9월 12일날 출발했으니 3일째네요.

오중사; (신재민에게 자고있는 마거릿의 카메라를 달라고 수화를 한다, 신재민이 카메라를 주니까 조심히 마거릿의 카메라를 들고 자고있는 마거릿과 신재민을 찍는다 그리고 몇장 더 해병대원들을 찍는데, 초점이 전혀 안맞는다)

신재민; (박종혁에게) 정일병은 어떤가요

박종혁; 밥 잘 처먹고 있더라고요. 마거릿에 감사하다 전해주라고

신재민; 신병들이 많네요

박종혁; 급한데 찬밥 더운밥 가리겠습니다. 여기 홍이병은 겨우 17인데요

홍이병; (가벼운 목례를 신재민에게 하고, 박종혁에게) 이등상사님, 미국은 여자도 기자가 될수 있나봐요

박종혁; 미국이니까, 니도 미국가면 뭐든지 딸수 있다.

신재민; (오중사에게) 카메라를 이리주세요 (카메라를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비닐로 카메라를 감싼다)

박이병; (마거릿을 보며) 제길 오줌도 못누겠네

최하사; 왜 초조해서 그래, 무섭냐

이하사; 제가요, 최하사님 보다 제 간이 더 클걸요

최하사; 임마 난 호랑이 잡던 포수였어



이하사; (마거릿을 보며) 전 귀신잡는 해병인디, 뭐가 무서워요. 마거릿이 있어서 그러죠  
 최하사; 야 임마 니꺼 볼게 뭐있다고. 숲만 엄청 우거졌지, 작은 꼬챙이 하나 딸랑, 그냥 바지에 싸, 어차피 물에 젖을 텐데  
 이하사; (박이병이 자기 수통을 끄내서 보니, 총알구멍이 나있다) 야, 홍이병, 니 수통좀 줘봐.  
 최하사; 왜 받아마시게  
 홍이병; (박이병에게 수통을 준다) 여기 있습니다  
 이하사; (수통의 물을 사타구니에 붙는다, 그러면서 시원하다는 표정) 이 여자는 큰배 놔두고 여기에 타서, 개고생시켜.  
 최하사; 가지가지 한다.  
 오중사; 그것도 몰랐냐, 미군 함장이 여자는 함대에 태울수 없데, 재수 옴붙는 다고, 박이병; 그래서요  
 오중사; 마거릿이 함장에게 그럼 상륙정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이 작전에 참전하기로,, 그쵸 신소위님.  
 신재민;네  
 이하사; 아니 미국도 여자들 대하는건 우리랑 똑같네. 그렇다고 잠이 오나, 이판국에, 오줌도 지리는 판국에,  
 홍이병; 김중사님, 얼굴이 안좋아 보이는데요  
 오중사; 제 지금 토할라 저란다. 배만 타면 저래  
 홍이병; 해병대인데요  
 오중사; 잔 지리산 골짜기에 온놈이야, 심마니가 됐어야 했는데,

#### S. 포격과 총탄소리,

상륙정병; 상륙 준비! 일어서, 총기 확인

긴장된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하며 다들 일어서 상륙준비를 한다.

S. 낙동강 전선 북한군 기관총 벙커\_인천과 비슷한 포격과 총격소리  
 북한군 기관총 사수; 대좌 동지, 적군이 개때처럼 밀려옴네다.

대좌; 기다리라우, 사정권에 들때까지

#### S. 인천 상륙정

해병대들의 긴장감이 보인다. 물살이 상륙정안으로 들어온다.

오중사; 야 신병들 사다리들 들어야지

박이병; 최하사님, 저문 열리면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겠죠. 상륙전은 초기에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데,

오중사; 그러니까, 살려면 껌싸게 뛰어, 일단 물위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해.. 있

S. 안에서 상륙정의 문이 열린다

S. 낙동간 전선 북한군 기관총 벙커

대좌; 발사

기관총에 불을 뿜는다.

기관총 사수; 적의 탱크가 몰려옵니다.

탱크와 군인들이 다가오는게 북한군 벙커에서 보임

S. 밖에서 상륙정의 문이 열린다. 박종혁이 문바로 옆에 서서

박종혁; 빨리들 뛰어, 앞으로 앞으로.

군인들이 아주 급히 앞으로 나아가단. 그러다 몇명이 물속에 빠진다 마거릿도 발을 헛디더, 물속에 빠진다, 빠진 마거릿의 얼굴위를 바주카포를 짚어 박이병이 하선 하면서 밟고 깜짝 놀라는 순간, 총알이 박이병 철모에 튕겨져 나가 박이병 두번 놀란다.

신재민가 마거릿을 물에서 건져 해안으로 끌고 간다.

김중사는 하선과 동시에 토한다.

마거릿; (물에서 건져진 후) 내 카메라

신재민; 여기 (비닐에 싸인 카메라를 건네주며)

S. 의외로 약한 북한군의 저항. 앞선 군인들이 돌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마거릿은 뒤에서 그장면을 찍는다. 그리고 마거릿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해병 대원들이 마거릿을 받혀주고 잡아 올려주고 똑방 정상에 오르자 마거릿을 행가래 한다. 환호하는 군인들,,

S. 마거릿이 한국해병들과 도보로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중.

윤이병; (건빵을 먹으며) 최하사님, 고향으로 함경도라고 하지 않았나요

최하사; 그래

윤이병; 왜 하사님에게 포수라고 하죠

김중사; 최하사가 원래 사냥꾼이었는데, 전쟁터지기 전날 남쪽에 왔다가 이 전쟁이 터져서 입대한거야

윤이병; 좋으시겠어요 이제 고향에도 가게 되서, 누가 제일 보고싶으세요

최하사; 막내 남동생, 어머님이 일찍 돌아 가셔서, 내가 키웠거든,

윤이병; 몇살인데요

최하사; 12 살이야

김중사; 최하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최하사; 막내가 저보다 13 살 어려요.

S.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나면, 행군중 다 멈추고 사주경계를 한다.  
S. 길위는 북한군들과 미군, 한국군들의 처참한 시체가 널부러져 있다.

지프가 뱅뱅 거리면서 다가온다.  
키즈; 헤이 마거릿,,  
지프위에 키즈, 호머, 그리고 다른 외국기자들.

키즈; 여기 타세요  
마거릿; 됐어요.  
호머; 빨리 가야돼, 서울에 입성하는 보도를 내려면,,

지프가 떠나간다

S.옆에서 7 명의 북한군 포로들이 발가 벗겨진채 손을 머리에 들고 무장군인들이 거리에서 끌고간다. 마거릿이 포로들의 뒤편에서 사진을 찍는다.

S. 시가전 1\_도보로 서울에 진입하여 이동하는 해병대 와 국군들. 약간의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고 환영 한다.

S. 건물에 숨어있는 북한군 기관총병들.

S. 다른건물에는 몇몇 북한군들이 빠르게 건물위로 올라간다.

S. 한국군들이 환영인파와 뒤섞여 있을때, 매복중이던 북한군들이 총격을 가한다. 시가전 발생으로 몇몇 다수의 일반인들과 군인들이 쓰러지고 흩어진다. 아줌마 다리에 총상을 입구 길 한복판에 포대에 싸인 아기를 내려놓고 어쩔줄 모른다. 울고있는 아줌마 그리고 포대에 내려진 아기.

S. 계속 되는 시가전. 북한군 기관총과 산발적으로 건물들 사이사이에서 총격 발생. 해병대원들이 산개한다.

박종혁; 박이병, 바주카포  
박이병; 포탄이 한발밖에 없는데요.  
박종혁; 저걸 까야돼

박이병이 바주카포로 북한군 기관총 포대를 날려버린다. 그리고 해병들이 북한군이 점거중인 건물을 총격과 수류탄으로 진압한다.

S. 시가전 와중에 한명의 북한군은 서둘러 죽은 남자의 옷을 벗겨 갈아입고 뛰어간다.

S 조이병 (해병 의무병)이 다리에 상처 입은 아줌마에게 달려간다,

조이병 (의무병); (애엄마의 다리를 보며) 괜찮으세요  
아줌마; 애기나 먼저 봐주세요. (아기는 떨어져 출혈이 있다)  
조이병; (숨을 주며) 피가 나는 곳을 짹 누르세요.

의무병이, 아기의 상처 치유를 하는 동안, 마거릿이 그장면을 사진찍고 있다.

S. 멀리 떨어진 3 층 건물안에 있는 북한군 저격병이 아줌마, 아기, 마거릿순으로 겨눈지만 여자인것을 확인한 순간 총구를 옆에 한국 해병에 겨누어 발사, 조이병은 쓰러지고. 마거릿과 몇몇 군인들은 신재민이 있는 반대편쪽 건물뒤로 숨는다. 거리 한복판에는 애기를 안고 울고있는 아줌마, 쓰러져 있는 조이병.

애엄마;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계속 울부짖는다)

S. 건물 뒷편, 해병대원들과 신재민

박종혁; 어디야  
최하사; (맞은편 건물을 가리키며) 저, 건물인거 같은데, 잘 안보여요. 야 홍이병  
홍이병; 네.  
최하사; 니가 달리기 선수랬지.  
홍이병; 국민학교때,  
최하사; 군장 벗고, 이리와

홍이병이 군장 벗고 온다.  
최하사; 저쪽 건물쪽으로 지그재그로 뛰다. 저 새끼 총알보다 느리면, 죽는거야.  
알았나. 불알이 떨어지도록 뛰어  
홍이병; 네.

홍이병이 뛰다. 저격병 사격, 뛰는 와중에 애기 업은 아이 엄마가 마주치는 순간 총알이 한발, 한발 날라 온다. 홍이병이 엄호될수 있는 건물에 나오지만 세번째 총알에 맞고 쓰러진다.

최하사; 병신 새끼 빨리 뛰라니까.

쓰러져있던 홍이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몸을 엎패 후 최하사 쪽으로 손을 흔든다

최하사; 저새끼 살았어,,  
박종혁; 최포수 봤어.  
최하사; 넵 위치확인.

S. 북한군 저격병이 사격후 몸을 엎패하며, 총알을 새로 장전 한다.

S. 건물뒤의 해병대.

박종혁; 이번에 누가 뛰지.

신재민; 제가 뛰죠. 모신나강 소총인거 같은데, 5 발을 기다렸다 쏘세요 (군장을 벗고 뛰다)

박종혁: (최하사에게) 잘해

최하사; M1 개런드를 들고, (신재민가 뛰자 적 저격수의 탄을 쏜다)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다섯 발, 병신 마지막을 남겨놔야지, 탕 (적 저격수 저격)

박종혁과 최하사가 홍이병에게 달려간다. 홍이병이 부상이 별거 아닌거 보고

최하사; 달리기 선수래매, 어째 총알 보다 느리냐.

다른 해병들이 애엄마와 아기를 치료하고 마저 치료한다.

신재민은 마거릿의 카메라를 달라고 한다.

마거릿; 뭐하려고

신재민; (마거릿은 카메라를 검정색으로 칠한다.) 이게 안전할 거예요.

S. 시가전 2, 해병대들이 심한 총격전을 하면서 건물 하나하나 점령하며 형무소 앞에 진지에 도착, 총격전. 박종혁, 오중사, 김중사, 마거릿, 신재민

S. 오중사; (총을 쏘면서, 박종혁에게) 왜 하필 형무소를 점령하라는 겁니까

박종혁; 저기 경찰 군인가족들이 있어서 빨리 구출하라는 명령이야

S. 형무소 안; 북한군들이 하의만 입은 모든 우익인사와 종교인, 군인 경찰 가족들을 구덩이에 3 열로 세운다.

일제히 북한군들이 단발씨 사격한다. 일렬이 대부분 쓰러지자, 다시 사격, 2 열과 3 열이 다 쓰러진다. 그리고 확인사살로 구덩이로 연발로 사격한다.

북한군 지휘관이 아래위로 급히 사격중지 수신호를 한다

북한군; 중지, 중지.. 동지들, 철수 하시오.

S. 형무소 밖. 북한군이 신재민 일행에게 기관총 세례, 김중사가 달려나가 수류탄으로 기관총 진지 진압. 비행기 소리와 함께 폭격으로 북한군 총격 멈춤,

S. 형무소 안으로 해병대원들이 들어간다.

북한군이 급히 후퇴한 모습. 뒤뜰로 가니 많은 민간인들이 구덩이에 학살당했다. 시체들을 보고 마거릿 촬영.

최하사; 이 빨갱이 새끼들,,

마거릿이 학살 장면을 촬영하는데, 시체들 속에 손이 하나 올라온다.

마거릿; (해병대원들에게) Hey, 누군가 살아있어요

해병대들이 달려와서 살아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낸다. 한쪽 귀만 총으로 날라갔다.

S. 마거릿과 신재민과 형무소 밖으로 나오는데, 한국 군인들이 포로로 붙잡은 북한군들을 총살한다.

S. 10 월 17 일. 평양 부근의 논 과 개활지,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키즈 와 마거릿, 신재민, 100 명의 한국군 해병들이 개활지를 조심히 산개해가며 걸어가고 있다.

키즈; (마거릿에게) 대단한 상륙전이었어쥬.

마거릿; 맥아더 장군의 작전이었잖아요

키즈; 어디있어나요. 함선에서 못봤는데,,

마거릿; 난 상륙정에

키즈; 왜요.

마거릿; 함장이 여자는 탈수가 없다고 해서

키즈; 정말요, bull shit, 그래서요

마거릿; 그래도 내가 즐랐지. 그러니까 함선은 안되고 상륙정에 있는 조건으로

키즈; 그럼 3 일동안 상륙정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맵소사! 괜찮았어요

마거릿; 불일 보는게 힘들었어

키즈; (생각하기도 끔찍하다는) 정말 말도 안돼요!

마거릿; 키즈가 함장이었어야 하는데,

키즈; 마거릿은 UN 군이 어디까지 갈거 잤아

마거릿; 맥아더 장군은 공산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려

하려는것 같아

박종혁; 간격 유지 (선창)

뒤의 병사들도 간격 유지라고 후창하면 나아간다.

마거릿; (키즈에게) 호머씨는

키즈; 지금 썸 미군 사단장들과 지프타고 가고 있을거예요

마거릿; 당신은 왜 거기안있고

키즈; 저도 진짜 전투를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키즈; 그 소문 들었어요

마거릿; 무슨

키즈; 중국쪽에서 UN 군이 38 선을 넘어오면 참전 할지도 모른다는

마라렛; 모택동이 이제 겨우 집권했는데, 안 그럴듯

키즈; 저 언덕만 지나면 평양이라던데.

키즈의 발이 눈 깊숙히 빠져버린다, 한발 내딛으면 다른 발이 또 빠진다.

다른이들은 앞으로 전진.

S. 숲에 대기하고 있는 북한군들, 그리고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한다. (키즈의 카메라)

S. 개활지와 논에서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다가가던 한국 해병 척후병이 갑자기 외친다. 장면, 장면을 마거릿이 사진으로 한장 한장 찍는다.

척후병; 적 ~~

미처 말을 끝맺기 전에 쓰러지며 단발 총소리. 척후병이 쓰러진다. 연이어 총소리와 몇몇 군인들이 공개된 지역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다. 순식간에 교전이 발생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심지어 앞서걸던 해병 한명은 뒤따라 오던 아군의 오인사격에도 쓰러진다.

뒤에 쳐져있던 키즈가 총을 맞고 쓰러진다.

마거릿과 신재민가 키즈에게 달려든다. 마거릿이 키즈의 카메라가 부서져있는 걸 보고.

마거릿; 키즈, you are OK. (하며 불을 살짝 친다)

키즈; (눈을 뜨며) 난 죽었지.

마거릿; (키즈의 카메라를 들며) 너의 카메라가, 너 대신 죽었어

키즈; (부서진 자기 카메라를 보고) 그래

신재민이 간헐적으로 소총으로 사격하고 키즈와 마거릿은 옆에 있다. 신재민의 사격하는 모습과 소총에서 탄피가 나오는 사진을 찍는다.

S. 모든 병사들이 포복하며 전진 한다. 하지만 앞에서 강렬한 충격 및 북한군측에서 날아오는 포격

홍이병이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이걸 박종혁이 본다.

박종혁; 야 홍이병,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홍이병; (손으로 피가 흐르는 얼굴을 감싸고) 앞이 안보여요, 죽기 싫어요.

김중사; 병신새끼야 안죽어, 가만이 있어

하지만, 집중 사격에 홍이병에게 가까이 갈수 없다.

홍이병; (울면서)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김중사가 뛰어 나가려 하자 박종혁이 붙잡는다. 그래도 뿌리치고 홍이병에게 뛰어간다.

박종혁; 야 김중사!

김중사; (홍이병에게) 이 새끼야 내가 구해줄게.

홍이병에게 채 다다르기 전에 김중사가 총에 맞고 쓰러진다.

홍이병; 김중사님, 어디계세요 (땅으로 옆의 손을 더듬더듬 만진다)

박종혁; 야 홍이병 가만히 있어

홍이병; 김중사님 (홍이병의 손이 쓰러져 있는 김중사의 손에 닿는 순간, 날아 오는 총탄에 홍이병이 머리에 맞고 쓰러진다)

오중사; (박종혁에게) 몸을 숨길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노출되서 위험합니다.

박종혁; 다 뒤로 빠져서 경사로로 후퇴한다

S. 박이병과 다른 해병한명이 바주카포로 북한군의 한개 병커를 파괴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병커를 겨누는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을 사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연달아 박이병과 부사수가 쓰러지지만, 박이병이 다시 일어나 바주카포를 쏘려는 순간 다시 총에 맞음 과 동시에 발사된 포탄이 박이병앞에서 터져 버린다.

S. 경사로.

박종혁; (무전병에게) 박격포병을 불러

원이병 (무전병); 저희가 너무빨리 진군해 와서, 10 분쯤 걸린다는 데요

박종혁; 여기 있다가 다 죽어

오하사; 중사님 저앞에 (신재민, 마거릿, 키즈가 앞에 고립되어있다)

박종혁; 오중사 여기다 기관총 설치하고 내가 전진할때 쏘, (원이병에게) 박격포 병들에게 저쪽 숲 방면의 좌표를 불러주고., 최하사, 이하사, 윤이병 날따라와

북한군 진지와 병커에서 기관총이 계속 발사되고 몇몇 한국 해병들이 쓰러진다.

오중사가 기관총을 설치하고 집중사격을 한다.

박종혁 일행이 신재민 일행에 접근. 사진을 찍으려는 키즈와 마거릿에게

박종혁; 자세를 낮춰,, 이하사, 엄호 할테니 나가

이하사가 수류탄을 들고 나아간다. 그러나 총에 맞고 쓰러지고 이하사와 함께 수류탄이 터진다.

박종혁; 신소위, 최포수 엄호, 윤이병은 나와 뛰다. 수류탄은 다 이리 주고



박종혁, 김이병이 신재민과 최하사의 수류탄까지 받고 달려 나간다. 최하사의 저격의 도움으로 두명이 북한군 병커에 가까이 도착, 박종혁가 수류탄을 여러개 던지는 와중에 북한군이 나와서 사격하려 하면, 최하사 저격한다. 박종혁과 윤이병의 분투로 두개의 북한군 기관총 진지가 파괴된다. 박종혁과 윤이병은 총상을 입는다.

이때 최하사와 신재민 북한군 진지를 돌진한다. 진지를 따라 최하사가 한명씩 죽인다. 소총에서 총알이 다 떨어지고, 권총을 뽑아든다. 그리고 마주친 12 세 정도의 소년 북한군, 최하사가 순간적으로 머뭇거린다. 그때 소년 북한군이 총알을 발사해 최하사가 맞고 쓰러진다. 뒤따라 오던 원이병이 소년북한군을 쏘고 최하사는 죽음을 맞이한다. 원이병의 수신호로 다른 아군들에게 빨리 오라고 한다.

키즈와 함께 있던 마거릿이 앞으로 뛰쳐 나가려 하자  
키즈; (뛰쳐나가는 마가렛에게) 마거릿, 당신 죽을라고 환장했어, 머리위로 총알이 날라다지잖아

마거릿이 키즈의 말림에도 뛰쳐 나와 북한군 진지로 나간다

키즈; 제길 (혼자 땅에 바짝 엎드린채, 겁에 질려 그냥 그대로 있다)

달려오는 마거릿을 옆에서 쏘려는 북한군, 신재민이 사살한다.  
최하사와 어린 북한군의 죽음을 마거릿이 사진을 찍는다.

키즈; (다시 일어나려다 총소리에 놀라 다시 땅에 엎드린채 혼자말로) 아무래도 난 앞으로는 전선에 취재를 못 할거 같애

북한 병커와 진지를 점령한 해병대들이 즐거워한다. 그때 멀리서 나타나는 아군 비행기,

비행기 조종사; (영어로) 아래 적들 관측. 투하 (폭탄 투하 단추를 누른다)

해병들; (떨어지는 폭탄을 보며경악하며) 뭐야

신재민와 마거릿, 그리고 박종혁을 비롯한 몇명 해병들은 진지 옆의 연못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물위로 번지는 불꽃.. 키즈는 물에 뛰어들지 못했다

물위로 나오는 신재민 마거릿, 박종혁, 하지만 상당수 해병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져 있다. 여기 저기 신음 소리들, 거의 전멸당한 해병대들 그리고 불에 탄 키즈의 시체와 그의 카메라.

S. 평양 시내, 군인들은 북으로 진군하고 피난민들은 남으로 향하고 있다.